

하나님의 말씀

원래 초기의 영적인 존재들의 창조 - 루시퍼와 원래의 영들의 타락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8806 구속사역을 이해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기 위해 원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4
8394 혼의 정화.....	5
8127 빛과 능력의 근원의 중심.....	6
0750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	8
5693 원래의 법칙은 사랑이다.....	9
5414 원래 초기에 말씀이 있었다.....	10
5598 나는 영원으로부터 존재한다. 루시퍼의 창조.....	11
7067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는 일.....	12
8878 창조의 과정에 대한 설명. 존재들의 의지.....	16
5645 루시퍼는 언제까지 창조할 수 있는가?.....	18
7932 하나님이 타락을 하게 했는가?.....	19
6991 자유의지가 타락의 원인이다. 하나님처럼 되는 일.....	21
8055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의 의지의 시험.....	23
8672 루시퍼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원인.....	25
6765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일은 무지와 같다.....	27
6954 루시퍼와 하나님을 떠난 그의 타락.....	29
7471 존재들의 하나님을 떠난 타락.....	31
8797 하나님은 단지 온전한 존재들을 창조했다.....	33
8798 계시 번호 8797 에서 계속: 하나님은 단지 온전한 존재들을 창조했다.....	35
8975 창조하는 역사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역사였다.....	37
8863 악은 어떻게 발생되었는가?.....	39
8887 온전했던 존재가 언제 왜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42
8755 타락하지 않은 원래의 영이 행하는 일.....	43
8868 창조 된 존재들의 계급?.....	46
6207 피조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47
8631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피조물들의 의지를 안다.....	49
6087 원죄. 사랑의 발산. 예수 그리스도.....	50

너희 인간들에게 원죄로 인한 타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단지 인간적인 죄에 대해 드러진 속죄의 역사로 여기고 있다. 실제 너희는 구속사역을 반박한다. 왜냐면 너희가 믿는 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마지막 최소 단위까지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의 죄가 너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써 지은 것만이라면 이런 관점은 이해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영들이 나로부터 떠나간 큰 원죄에 관한 것이고 이 죄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죄이고 너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모든 창조 이유이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이유이다. 나로부터 창조된 존재들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예수 안에서 볼 수 있게 했다.

누구든지 단지 첫 번째 사람의 죄로 인한 타락만을 적용하면, 그에게는 이 죄를 위해 구세주가 필요하게 된 것이 믿을만 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항상 인류가 범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인류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사람들이 지은 죄들은 실제로 내 사랑에 대항해 어긴 것들로서 큰 원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신의 빛이 없는 상태 가운데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죄는 모든 것을 설명한다. 사람들이 영들의 타락의 과정을 모르는 동안에는 이 죄를 사하기 위해 나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를 위해 이 죄를 자신에게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으신 하나님의 구세주를 믿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전파자의 일로 나타낼지라도 하나님의 구세주를 부인하는 모든 가르침은 그리고 구속의 원칙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버려야만 한다.

단지 나 자신만이 인간 예수 안에서 완성할 수 있었던 원죄로부터의 구속에 관한 것이다. 이로써 내가 그 안에서 인간이 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면 나 자신이 내 어떤 피조물에게도 피조물을 소멸되지 않게 하면서 나타내 보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가 나를 볼 수 있게 상상할 수 있게 만들려면, 이는 너희와 같은 형체 안에서 일어나야만 한다. 이 형체가 너희에게는 바로 인간 예수이다. 볼 수 있는 세계가 창조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들이 나를 떠나 타락한 과정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항상 지속되는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다. 그러면 타락하지 않은 원래의 영의 하나인 인류의 구원자, 너희가 모든 것을 창조하는 능력에 대한 어떤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 자신이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한 분의 구세주를 인정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 그분은 모든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희 인간을 위해 너희 죄의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 용서가 갑작스럽게 주어질 수 없고 너희 자신이 이를 얻기 위해 부탁해야만 한다.

왜냐면 타락이 자유의지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돌아가는 것도 자유의지 가운데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완성에 이르기 위해 진지하게 애를 쓰는 사람들은 원죄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써 지은 죄도 용서를 받는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용서가 확실하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 없다.

그러나 예수를 단지 구세주로 거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인간으로 떠오른 선생으로 보는 잘못 된 가르침 가운데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에게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단지 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만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인간이 된 예수이다.

아멘

혼의 정화.

B.D. No. 8394

1963년 1월 27일

자신의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십자가의 길은 축복이 될 것이다. 내 뜻 아래 복종하며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은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너희 혼의 정화가 아직 필요하다.

왜냐면 혼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자신을 정화시켜서 고난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가 희귀하기 때문이다. 혼이 아주 높은 사랑의 정도에 도달해 혼의 정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서 이제 빛의 축복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혼은 희귀하다.

너희의 마지막 완성을 돕기 위해 이로써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 내 사랑의 빛이 모든 충만함으로 혼을 채워줄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어느 정도의 고난을 짊어져야만 한다. 나는 항상 너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제공할 것이다. 또는 내가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짊어지면서 너희가 지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너희에게 십자가가 너무 힘들게 생각이 되면, 단지 나에게 긴밀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너희는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크기의 고난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영의 나라에서 축복의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무엇을 짊어 질 수 있는 안다.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직 나라의 주인이 내 대적자인 나라에서 거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이 대적자가 너희의 혼을 얻기 위해 너희가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그의 유혹은 주로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대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너희들 안에 단지 조급함을 불쾌함을 충동을 불러 일으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 너희 안에 내 사랑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려고 한다. 그는 너희의 나를 향한 사랑이 줄어들게 만들려고 한다.

너희는 그에게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사랑 안에서 나에게 복종해야 하고 내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큰 축복을 주기 위해 이로써 너희의 혼이 항상 온전하게 되게 너희가 복종하며 견디는 모든 고난이 혼이 온전하게 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정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 혼의 모든 입자들이 영화 돼야만 한다. 아직 이 땅에 속한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을 때 가지고 왔던, 이 전의 때에 속했던 충동과 정욕 어떤 것도 너희 혼에 달라 붙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자주 충동과 정욕을 극복하게 되기까지 아주 오랜 동안 싸워야만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육체적인 고통이 도움이 된다. 이 고통은 너희 혼을 정화시키고 내 사랑의 비추임을 막거나 그의 능력을 줄어들게 하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한다. 그러나 내 사랑의 비추임은 너희에게 축복을 의미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올바른 삶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편안하게 너의 육체가 죽어 가게 하라. 너희가 고통을 견디어 야만 하면, 그걸로 인해 불편해 하지 말라. 그 대신에 내가 너희가 이 땅을 떠나야 할 때로 정한 때가 되면, 너희가 더욱 기쁘게 너희의 이 땅의 육체를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알라.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시간을 정함을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정해진 과제를 너희가 마지막까지 성취시키게 하기 위해 너희의 장애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과제를 아직 성취하지 못한 동안에는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너희는 제공받을 것이다.

너희는 항상 조용하게 내 뜻에 복종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자로써 너희들 옆에 함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짐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나와 연결이 너희에게 내 지속적인 능력을 제공되는 것을 보장한다.

내 능력은 진실로 연약한 가운데 강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필요한 동안에는 너희의 삶의 과정이 내 의지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너희는 항상 모든 것이 너희들과 너희의 과제를 돕기 위해 연관되어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돌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사명을 분명하게 지원해주고 완성시키게 해줄 것이다. 왜냐면 이 일이 단지 너희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 진정한 생명에 도달해야 할 도움을 받지 못하면, 가장 큰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도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로 사랑으로부터 우려 나와서 행해져야만 하기 때문에 도우려는 의지를 가진 자기 자신을 통해 내가 역사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 일꾼들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의 이 땅의 운명이 아주 어렵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혼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복종하며 감당할 것이다.

왜냐면 혼은 계속하여 이를 통해 영적인 능력이 증가되고 자신의 육체를 극복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육체도 그 자신의 입자가 영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이 단지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빛과 능력의 근원의 중심.

B.D. No. 8127

1962년 3월 17일

무 한한 가장 큰 영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빛과 능력의 근원의 중심이 너희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한다. 그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한때 그로부터 나온 능력이

고 밖으로 발산 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잘못 된 길을 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출발점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가장 크고 가장 온전한 영의 원래의 근본 성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어떤 것도 버림받게 놔두지 않기 때문에 너희 사람들은 이제 실제 이 땅에서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너희는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영적인 연관 관계에 대한 지식이 없다. 너희는 이런 최고로 온전한 존재인 너희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과 너희들과의 관계에 관한 지식이 없다. 모든 자신의 피조물들에 대한 그의 아주 큰 사랑으로 그는 피조물들이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가면,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한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자극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한다. 무한한 가장 큰 영이 자신을 낮추어 영원한 시간 전에 자신으로부터 가장 작은 빛의 불씨로 반출 된 자신의 피조물에게 향한다.

왜냐면 피조물들은 자신들의 빛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유의지로 그로부터 떠났고 어둠을 향해 추구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영접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크고 가장 온전한 영이 그에게 전해주려는 것을 들을 의지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진리의 합당하게 설명해줄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부터 설명을 받을 것이다. 그는 너희에게 내적으로 그와 연결을 시키게 재촉할 것이다. 너희는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진리의 빛이 너희 안에서 밝혀지면, 너희가 너희를 출발지로 깨달은 이런 온전한 존재와 연결이 되기 위해 단지 너희의 자유의지 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깊은 지식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위로부터 온, 너희 심장을 밝혀주는 너희는 자신이 아직 빛의 불씨로써 그의 임재 안에서 빛나고 있을 때는 소유하였지만 잃어버렸던 깨달음을 너희에게 다시 돌려주는 빛이다.

한때 너희는 그의 가까이에 있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볼 수 없었다. 왜냐면 너희를 생성시킨 원래의 빛과 원래의 능력 앞에 너희는 소멸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1962년 3월 17일)

이제 그는 너희들 가까이에 있다. 너희가 비록 그를 볼 수 없을지라도 그는 자신을 너희에게 계시한다. 왜냐면 그는 너희가 그를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의 축복되지 못한 상태를 그가 측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가 축복되기 원한다. 그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영원한 능력과 빛의 원천인 그로부터 나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너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온전한 존재로부터 너희 사람들이 대화 요청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라.

너희는 한때 가장 작은 불씨로 발산되어 나왔다. 그러나 가장 온전한 존재가 그의 모든 자신의 피조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중단되지 않는 사랑이 그와 피조물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한한 큰 영과의 사람들과의 원래의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 사람 스스로 그와 연결되길 구하게 하기 위해 삶이 다시 자신의 원래의 출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자신을 계시하면서 이 사랑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낸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 왜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전하는 지식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자기 자신과 자신의 출처와 자신의 목표에 관한 깨달음이 전혀 없이 아주 오랜 동안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빛을 밝혀 준다. 그는 자신의 피조물들이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일을 긍휼히 여긴다.

왜냐면 이런 어두움 가운데 그들이 영원한 사랑인 자신의 창조주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는 그의 창조주를 깨달으면, 아버지에게 사랑을 드리게 된다.

그러므로 단지 그들의 원래 초기에 관한 깨달음을 그들의 이 땅의 사명에 관한 깨달음을 주는 작은 빛이 그들 안에 비추면, 그들 안에서 불타오르게 될 사랑을 행하게 자극하기 위해 최고로 온전한 존재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한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산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피조물들이 그와 연합이 된 가운데 말할 수 없게 축복되게 하기 위해 영원한 사랑에게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뒤따른다.

아멘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B.D. No. 0750

1939년 1월 21일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너희가 너희의 주변과 위에 보이는 모든 창조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너희에게 들 때에 이 말을 심장에 새기라. 그래서 내 권세가 모든 존재를 생성시키기에 충분하다면, 이런 창조의 의지에 대항하여 파괴하려는 의지의 힘은 어떤 종류의 힘이 되어야만 하느냐? 그러면 두번째 신성이 내 옆에서 역사해야만 하고, 그의 힘의 표현이 나의 역사에 대항해서 나타나야만 할 것이다.

이제 신성을 불완전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진실로 많은 신들을 신성 곁에 둘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의 진정한 신성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다. 나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를 믿어야만 하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복종해야만 한다. 그에게 빛이 임할 것이고, 그는 이 빛 가운데 우주의 통치자로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어떤 반대의 세력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땅의 표면의 물질적 변형 만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다. 이로써 내가 사람들의 심장에 넣어준 창조하려는 충동이 일할 수 있게 한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재량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만 하게 될 것이고, 항상 창조주의 전능함과 자연의 세력의 역사에 의존해야만 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연의 세력에 대항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전능한 창조주의 뜻을 헤아려보는 일보다 이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없다.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8/51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나의 모든 원초적 힘을 파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가 나를 분석하는 일이 성공할 가능성은 더 적다. 다시 말해 나의 존재와 역사를 인간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게 보이는 형태로 만드는 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일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절망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헤아릴 수 없는 영이었고, 영이고, 영으로 항상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전 우주가 보여주는 모든 것을 나 자신 안에 포함하고 있다. 모든 피조물들이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내 아래에 있다. 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고,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영이다.

아멘

원래의 법칙은 사랑이다.

B.D. No. 5693

1953년 6월 5일

원래의 법칙은 사랑이고, 원래의 힘이 사랑이고, 모든 물질의 원래 본질은 사랑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나온 모든 존재가 사랑인 것처럼 가장 높은 존재인 영원한 신성은 사랑이어야만 한다. 사랑은 힘이고, 모든 힘의 원천과 연결된 동안에는 항상 큰 효력이 있다. 힘의 원천인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질서에 따라 이 힘을 흘려 보내 자신의 법대로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러므로 그에 의해 생명으로 생성된 모든 존재는 제한이 없이 사랑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기원이 하나님인 표시로 사랑의 힘이 그 안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의 힘을 사용하기 원하는 동안에는, 그가 영원한 질서의 법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영원한 질서에 합당하고 또한 원래의 법에 합당하다. 존재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 존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에서 벗어나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원초적인 힘이기 때문에 법을 벗어나 역사하지 못하는 그의 힘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해지는 일을 볼 수 있는 곳에서 단지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적이지 않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도 사용할 수 없는 일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은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 밖에 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53년 6월 5일) 이로써 사랑의 힘이 자신을 표현하기 원하는 곳에서 영원한 질서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존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질서 안에서 살 때, 신적인 존재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존재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다시 충만하고 이로써 존재 또한 스스로 힘과 빛이 충만하고, 사랑의 힘이 또한 다시 전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면 존재는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창조하고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의 힘이 끊임없이 활동하도록 촉구하고, 하나님의 힘은 절대로 쉬지 않고 끊임 없는 생명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질서 밖에 거하는 상태는 죽음과 무기력과 마비의 상태이다. 그러나 생명은 단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질서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질서 밖으로 사는 존재는, 그가 원래의 성분이 사랑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면, 완전히 소멸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은 절대로 소멸될 수 없다. 그러나 존재 안의 모든 긍정

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고, 이는 하나님의 빛과 힘으로 충만한 상태와 반대되는 상태인 어둠과 무기력과 이로써 신적이지 않고 때문에 불행한 운명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은 이런 신적인 존재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자신의 법을 따르는 질서 안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시도하고, 자신의 사랑의 힘을 차갑고 굳어진 존재에게 발산해주고, 그들이 자신을 열면, 즉 그들이 저항하지 않고 이런 사랑의 발산의 역사에 자신을 맡기면, 존재는 서서히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가게 된다. 존재는 자신 안의 사랑을 스스로 확장시켰고, 그에게 이제 다시 흘러오는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기 위해 사용한다. 존재는 자신이 빛과 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 사랑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자신을 한때 생성되게 한 하나님과 연합한다.

아멘

원래 초기에 말씀이 있었다.

B.D. No. 5414

1952년 6월 16일

원래 초기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은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존재할 것이다. 말씀이 시작도 끝도 없는 나 자신이지만 원래 초기에 내 힘이 표현되어 나에 의해 모든 것이 생성되었을 때 말을 했다. 내가 창조한 존재를 위해 내가 말했다. 즉 피조물이 자신 안에서 내 말을 들었고, 자신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깨닫고, 같은 피조물과 대화할 수 있었고, 선물로써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된 것이 내 말씀이었다. 말씀이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사랑을 내 안에서 생성되어 나온 존재에게 전했다.

나는 영원 가운데 거했고, 나에게서는 한계가 없었고, 나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빛과 힘이 발산되었다. 그러나 내 충만한 생각을 표현한 내 말씀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 외에는 나에게서 나온 것을 받아드릴 수 있고, 동시에 내 말씀에 반응할 능력이 있고, 나 자신의 모습과 다를 수 없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존재가 나 자신의 모습과 다르다면, 존재가 나에게서 발산되는 내 사랑의 열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와 같은 존재를 창조하는 역사는 내 원래의 성품에 상응하는 욕구였다. 왜냐하면 내 본질의 전형인 사랑이 주기를 원했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했고, 내면에 존재하는 힘을 존재에게 선물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사랑을 흘려줄 수 있는 그릇을 창조했다. 내 사랑이 같은 온전함을 가진 존재를 창조했고, 이제 나는 내 의지와 생각과 사랑을 존재에게 전해주고, 내 안에서 나온 것인 내 말씀을 전해주면서 나 자신을 나타냈다. 나 자신이 내가 창조한 존재 안으로 들어갔고, 이 존재는 이제 나처럼 생각하고, 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 말씀이 존재를 가르쳤기 때문이고, 내 본질이 내가 창조한 존재 안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초기에 말씀이 있었다. 단지 내 말씀을 통해 최초의 피조물이 자신을 깨달았고 또한 나를 깨달았다. 존재가 내 말씀을 통해, 내가 나 자신을 표현해주는 일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존재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존재는 자신의 생각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다시 나 자신이 그에게 전해준 것이었고, 내가 그 안으로 말해준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나는 내 형상대로 존재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하는 힘

이었고, 내 힘을 무한의 세계를 향해 발산했고, 내 뜻대로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원래 초기의 중심이었다.

그러므로 내 안의 주는 원칙이 받는 존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받는 존재를 요구했다. 이런 존재는 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했고, 내가 말씀을 통해 존재가 나를 깨달을 수 있게 했다. 말씀은 내 사랑의 비추임과 같았다. 내 사랑의 비추임이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었고, 피조물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지혜와 권세로 일할 수 있게 했고,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게 했고, 이런 깨달음으로 인해 내 뜻을 그 안에 갖게 했다. 왜냐면 말씀은 나로부터 나와 존재에게 전달 되어 존재가 그의 역사하도록 정해주는 각인된 생각이기 때문이다.

원래 초기에 말씀이 있었다. 내가 창조한 존재에게 말씀이 필요했고, 내 생각을 존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는 일이 필요했다. 이런 생각의 전달을 통해 존재는 이제 나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또한 끊임 없이 축복된 가운데 머물렀다. 내가 생명으로 생성되게 한 존재가 더 이상 영원히 소멸될 수 없기 때문에 내 말씀도 또한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항상 내 피조물에게 나 자신을 표현할 것이고, 이런 일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내 말씀은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계속 존재할 것이다.

아멘

나는 영원으로부터 존재한다. 루시퍼의 창조.

B.D. No. 5598

1953년 4월 10일

나는 영원으로부터 존재하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존재할 것이다. 나는 가장 높은 최고로 온전한 존재이고, 나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마찬가지로 온전한 존재들이 생성되었다. 왜냐면 내가 단지 온전한 존재를 창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의해 창조된 존재는 또한 권세와 힘으로 충만했고, 그가 역사하는 일은 제한을 받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는 나처럼 창조하고 형성할 수 있었다. 왜냐면 그가 제한이 없게 나로부터 받은 힘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내 피조물 안으로 힘을 발산해주는 과정이 나를 말로 표현할 수 없게 행복하게 했고, 내 피조물에게 내 힘을 제공하도록 항상 새롭게 내 사랑을 행하려는 의지를 자극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처음으로 창조한 존재를 같은 정도로 행복하게 만들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도록 자극해 주기 위해 나는 항상 내가 처음으로 창조한 존재를 통해 끊임없이 내 피조물에게 내 힘을 제공했다. 그러나 내 사랑을 비추임이 더 이상 반응을 얻지 못했다. 왜냐면 최초로 창조된 존재가 나를 힘의 원천으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이 힘의 근원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자유의지로 창조할 수 있고, 따라서 그는 자신 위의 어느 누구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그가 타락하게 했다. 왜냐면 그가 의지적으로 나를 떠났고 이로써 사랑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그는 힘이 충만하고 권세가 충만하게 머물렀다. 왜냐면 내가 내 사랑이 창조한 그에게서 내 힘을 거두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실제 자신의 힘을 유지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 건설하는 효력을 내는 사랑의 힘이 아니었고, 파괴하고 분해시키는 효력을 갖게 되었다. 왜냐면 그의 힘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존재는 내 피

조물로 머물렀다. 왜냐면 내 사랑은 내 사랑의 산물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에게 시작점과 출발점이 있는 반면에 나는 영원으로부터 존재했다.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최초로 창조된 존재에게 자신이 최고 존재가 아니고 첫번째 존재라는 증거가 돼야만 했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시작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식은 그를 생성되게 한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이 넘치게 타오르게 해야만 했다. 왜냐면 그는 내가 온전하게 창조한 상태에서 너무 기뻐했고, 그는 자신의 같은 존재들을 창조함으로써 끊임없이 그의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창조하는 능력이 또한 그가 자신에게 생명을 준 분을 상기시켜줘야만 했다.

최초로 창조된 영인 그 안에 지식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모든 깨달음을 존재들에게 전할 수 있는 빛의 전달자였다. 존재들은 그의 의지에 의해 생성되었지만 그러나 내 모든 힘을 원래의 입자로 가지고 있고, 그들 모두가 나로부터 나와 첫번째로 창조된 존재를 항상 충만하게 채워주었던 사랑에서 태어났다. 이런 깨달음과 그에게 충만하게 비춰준 빛에도 불구하고 존재는 타락했다. 그는 나를 떠났고, 영원한 사랑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더 이상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나를 대적했다. 그러나 존재는 나를 벗어날 수 없었다.

존재는 비록 그가 자신의 시작점이 있지만 소멸될 수 없다. 왜냐면 그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내 힘이기 때문이다. 이 힘은 어느 정도까지 단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면 이런 정도를 초과하면 긍정적인 힘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이다. 나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한 때 나로부터 나온 존재는 피할 수 없게 나에게 돌아온다. 돌아오면 그는 변화를 이룬 것이고, 자신을 빛의 불씨로 깨달았고, 영원한 빛을 추구하고, 나 곁에서 내 안에서 자신의 축복을 발견하고, 나는 이제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내 사랑의 힘으로 그를 충만하게 채워준다.

아멘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는 일.

B.D. No. 7067

1958년 3월 17일

너희 내면에 아직 어두운 곳이 밝게 되는 일이 내 뜻이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답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알기 원하고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내 사랑과 지혜 가운데 나를 깨닫고 나 자신에게 그들의 사랑을 드리게 하기 위해 답변한다.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는 일은 영적인 과정이었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 자신이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는 빛의 존재가 단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합당하게 이 과정의 대강의 윤곽만을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렇지라도 이 윤곽은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를 밝게 해주는데 기여하는 깊은 이유와 끝 없이 많은 중간 과정이 생략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단지 진리를 가르침받기 원하는 너희를 혼란 된 생각 속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내가 첫 번째 존재를 창조했을 때 단지 내 항상 발산되는 사랑의 힘을 받아야 하는 그릇을 창조하려는 생각을 했다. 왜냐면 내 제한 없는 사랑은 자신을 선물하고 항상 단지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내 사랑의 힘은 쉬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영적인 창조물들을 생성했고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에 합당한 다시 말해 내 형상인 어떤 존재를 생성하기 원했다.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다. 내 곁에 최고로 온전한 존재가 생성되었다. 나 자신이 그로 인해 기뻐했고 그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나 자신의 형상이고 이제 내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그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이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내가 그 안에 부여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내 힘의 원천이 형성하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존재는 자신 안에 자신에게 쉬지 않고 흘러가는 사랑의 힘의 흐름을 활용하고 자신이 존재들을 생성하려는 의지와 소원이 있었고 같은 과정이 이제 반복되었다. 왜냐면 내가 바로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가 자신과 같은 존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축복에 참여하기 원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 자신의 형상으로써 존재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나로부터 항상 사랑과 능력이 그에게 흘러가 존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놔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능력은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을 창조하는 역사를 일으켰다. 이제 창조된 존재도 나 자신에 의해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와 다를 수 없었다. 존재들은 최고로 온전하고 빛을 발산하는 아주 권세 있고 모두가 나 자신이 나로부터 생성되게 한 형상에 합당한 영들이었다. 비록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의 의지가 이런 내 능력을 사용했을지라도 그가 창조하는 일을 비로소 가능하게 해주었던 나로부터 흘러간 능력 때문에 나 자신이 그들의 창조자였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들이 나와 내 첫 번째 형상으로부터 생성되었고 모든 존재들은 같은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원래 창조된 존재 안에 내 의지가 역사했고 원래 창조된 영들의 무리들은 나를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왜냐면 내 사랑의 불길이 그들의 원래의 성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순수한 사랑의 생성물이고 이로써 모든 창조된 존재들은 나에게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축복된 조화와 계속하여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끝 없이 긴 시간이 흘러갔다. 이런 상태가 바뀔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창조하는 과정이 단지 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른 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일은 나에 의해 첫 번째로 창조된 빛의 전달자인 존재가 나를 보려는 소원으로 인해 일어났다. 존재의 나를 향한 사랑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능력과 빛의 중심으로서 나에 의해 창조된 존재들이 나를 볼 수 없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나를 보기 원했다. 나 자신의 빛의 불씨로 창조된 그가 내 빛이 충만함으로 인해 소멸되었을 것이므로 보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가 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나로부터 독립되게 만들고 동시에 원래 창조된 영들의 무리 앞에서 자신을 창조주로 나타내 보이려는 생각이 그를 스쳐 지나갔고 더 나은 깨달음에 반해 나를 보려는 갈망의 결과로써 그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모든 존재들은 온전함의 증거로써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는 항상 내 의지와 일치했다. 이 자유의지가 이런 생각의 혼돈을 허용했다. 그러므로 빛의 전달자인 루시퍼가 자신의 의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일이 나에 의해 금지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창조하는 일은 중단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그의 의지가 더 이상 내 의지와 일치하

지 않았다. 동시에 그는 내 사랑의 흐름에 자신을 단았다. 그러나 항상 단지 잠시동안 단았다. 왜냐면 아직 그의 저항이 아주 적어 사랑이 흘러갈 수 있었고 그가 전적으로 모두 나에게 다시 헌신했기 때문이다. 이는 능력의 흐름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줄어들지 않는 창조하는 일을 의미했다.

그러나 잘못 된 생각이 항상 또 다시 그 안에서 떠올랐다. 왜냐면 그가 이런 생각을 나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렸다면, 내가 이 생각에 반론을 제기했을 것이다. 그는 한 동안 나를 제외시켰고 자신의 능력이 연약하게 되었음을 눈치 채지 못했다. (1968년 3월 16일) 그가 잘못 된 생각을 통해 나와 연결을 느슨하게 하였을 때 사랑의 힘의 흐름도 줄었다. 그러나 그가 이미 내 능력을 사용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 생명으로 생성되게 한 셀 수 없이 많은 영들의 무리를 보면서 이를 의식하지 못했다.

내 능력이 비로소 그가 존재들을 창조할 수 있게 했다는 것과 그의 나를 향한 사랑이 비로소 그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항상 또 다시 강조해야만 했다. 이로써 그의 사랑이 줄어들어 능력의 제공이 줄어들 일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 모든 창조 된 존재들은 나와 루시퍼와의 연결에 대한 증거이었다. 그러므로 루시퍼가 의식적으로 나를 떠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어떤 존재도 창조할 수 없었다. 모든 창조 된 존재들은 나로부터 나온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다.

그렇지라도 모든 존재들의 큰 부분이 나를 떠났다. 이런 사실이 존재들의 원래의 성분이 서로 다른 지에 대한 질문이 생길 만하게 한다. 나는 나로부터 단지 하나의 자립적인 존재를 생성했고 이 존재는 내 형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존재에 의해 생명으로 생성된 영의 존재들은 다시 전적으로 나와 내 형상에 합당해야만 한다. 존재들은 똑같이 온전하고 최고로 빛을 발산하는 피조물이었다. 왜냐면 전적으로 같았던 우리 둘의 사랑과 의지로부터 첫 번째로 창조된 빛의 전달자보다 어떤 면에서도 부족하지 않은 최고로 온전한 존재만이 단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도 비록 그들이 나를 볼 수 없을지라도 권세가 충만했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깨달았다. 왜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이다. 경외심 가운데 나를 섬길 자세가 되어 있고 항상 단지 내 뜻대로 역사하는 이로써 나 자신의 형상인 셀 수 없이 많은 영의 무리들이 최고로 축복된 가운데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였다. 이런 묘사할 수 없는 축복된 영의 무리들이 빛의 전달자의 나를 향한 사랑을 항상 더욱 증가시켜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 안에서 여러가지 느낌들이 싸우기 시작했고 그는 영광스러운 빛나는 존재들을 보고 이제 나 자신을 보기 원했다. 그는 존재들이 볼 수 있는 자신이 나보다 월등하다고 믿었고 자신이 나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알았을지라도 나를 더 이상 모든 존재들을 생성한 분으로 인정하기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흘러가는 능력을 의식하는 가운데 힘의 원천을 떠났다. 이런 일은 영원한 기간을 통해 일어났다. 왜냐면 항상 또 다시 축복을 향한 갈망이 그를 나에게 향하게 재촉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기 위한 능력을 항상 또 다시 받았다.

이처럼 이런 존재들도 그들의 원래의 성분은 같았다. 다시 말해 나로부터 발산 된 사랑의 힘이였다. 그러나 한동안 나를 떠난 일이 창조 된 존재의 의지와 사랑이 나보다 그들을 생산한 자에게 더 향하면서 창조하는 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나는 이런 존재들과 빛의 전달자를 다르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정도로 빛이 충만했고 마찬가지로 나를 자신들의 창조주로 깨달았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큰 결정을 요구하였을 때 그들의 의지가 자유한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 (1958년 3월 17일)

나에 의해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는 내가 모든 존재들과 분리될 수 없게 연결 된 것처럼 자신에 의해 생성 된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이 존재해야 하면, 내 사랑의 힘이 그들을 채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이제 그에 의해 창조되는 존재들이 이미 나를 떠난 의지를 가졌을 때 그들과 연결을 유지하기를 원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영의 존재들도 내 대적자에 의해 나를 떠나라는 자극을 받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내 대적자의 유혹에 넘어갔고 루시퍼는 이들을 깊은 곳으로 끌어 드렸다. 그들의 깨달음이 진실로 내 대적자의 비열한 계획을 혐오했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는 더욱 더 컸고 나에게 돌아오는 길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내 대적자를 추종하는 영들이 나를 떠났을지라도 초기에 창조 된 영들의 더 많은수가 나에게 머물렀다.

루시퍼가 나를 대적하기 시작한 숨겨진 저항은 셀 수 없이 많은 창조 된 영들이 의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나를 위한 또는 나를 대적하는 결정해야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저항이 지금까지 굳은 연합을 방해했고 한때 내 형상이었던 존재들을 같은 의지와 같은 사랑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고 분리가 일어났다. 이제 비록 내 능력이 그들을 창조하는데 참여했지만 그들을 생산한 자와 같은 성정을 가지게 된 우리의 사랑으로 생성 된 존재들이 이런 분리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먼저 생성 된 빛의 존재에게 이런 저항이 아직 없었고 빛의 전달자의 사랑과 의지가 전적으로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랑으로부터 단지 우리와 전적으로 동일한 존재들이 생성되었다. 존재들은 빛나는 충만한 빛과 제한이 없는 능력을 가진 나 자신과 동일한 내 사랑으로 나로부터 생성 된 형상이었고 적은 수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나에게 머물렀다.

적은 수의 존재들에게 루시퍼 안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 존재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하게 했고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기를 갈망했고 필요에 의해 나를 볼 수 없게 만든 것으로부터 잘못 된 결론을 내려 볼 수 있는 존재를 자신의 창조주로 인정했다. 볼 수 있는 존재는 이제 자신을 높여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을 자기에게 끌어 드렸다. 그러므로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의지적으로 나를 떠났고 이로써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

모든 존재들이 한때 빛과 힘을 발산했다. 왜냐면 내 사랑의 힘의 흐름이 없이는 어떤 것도 생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줄어드는 빛의 발산은 먼저 나를 향한 루시퍼의 사랑이 줄어듬으로써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이 존재에게 깨달음의 빛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면 창조하는 순간에 내 사랑의 힘이 다시 모든 존재들을 생성한 자에게 충만하게 흘러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의지적으로 나에게 저항해 이제 그 자신이 나처럼 마찬가지로 능력이

충만하다고 믿고 능력의 흐름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능력을 받을 수 없게 될 때까지 이런 창조하는 순간은 항상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한때 내 형상이었던 그의 영의 상태는 어두워졌고 내 상극이 되었다. 그의 성품은 전적으로 나와 반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권세와 강함으로 착각했던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졌고 내 사랑으로 생성된 최고의 존재가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 왜냐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특징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그의 의지를 나에게 향할지 또는 그에게 향할지 택할 자유가 있었다. 모든 존재는 의지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왜냐면 모든 존재는 빛의 깨달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고 자신의 생산자의 재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타락한 존재들이 내 사랑을 잃지 않았다. 왜냐면 내 사랑이 존재들을 생성했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존재들을 영원히 소멸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저항을 줄이기 전에는 내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이로써 불행할 것이다.

그러나 존재의 저항도 줄어들 것이다. 존재는 언젠가 다시 내 사랑을 구할 것이고 의식적으로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갈 것이다. 그러면 존재는 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을 것이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존재에게 그들이 보기를 갈망했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아멘

창조의 과정에 대한 설명. 존재들의 의지

B.D. No. 8878

1964년 11월 2일

너희가 발견한 것으로 믿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만약에 너희가 내 가르침을 받으면, 너희는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것이다. 모든 존재는 첫 번째로 창조된 내 영에게 모든 충만하게 흘러 들어간 내 능력으로부터 창조되어 나왔다. 그의 나로부터 타락이 남김 없이 이루어 졌을 때까지 그에게 능력의 제공이 중단될 수가 없었다.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기 위해 이 능력을 사용하는 동안에 이 능력은 그에게 계속하여 주어졌다. 이 모든 존재는 내 사랑의 힘으로 비추어 졌고 그래서 그들은 온전하고 온전해야만 했다. 왜냐면 그들에게는 빛이나 능력면에서 어떤 것에도 부족한 점이 전혀 없었고 게다가 나로부터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생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루시퍼가 타락할 때까지 내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때까지는 창조하는 일이 그에게는 가장 큰 축복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전적으로 나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비로소 그의 창조의 능력은 중단되게 되었다.

그는 끝없는 창조된 존재들을 자신의 능력의 증거로 바라보고 사랑의 힘이 계속 주어지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나 타락은 영원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났다. 이 기간 동안에 그는 자신의 의지를 서서히 바꾸어 나갔고 마지막에 가서는 나를 대적하게 되었다. 나로부터 주어진 힘을 사용해 그의 의지로 존재들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은 어느 정도 그의 의지를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창조물의 일 가운데 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비추어 그를 축복 가운데 거하게 했기 때문에 창조하는 순간에 그는 그의 비밀스러운 저항을 포기했고 즉 자신의 의지를 포기했고 전적으로 내 사랑의 힘 아래 복종했다. 이렇게 존재들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생성되게 되었다. 그는 이제 존재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떠난 의지를 영접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 존재들은 내 작품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존재에게 그들이 나를 위할 것인지 거역할 것인지 결정을 할 때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내 사랑의 빛이 모든 존재에게 밝게 비추여져서 그들은 자신을 생성한 존재를 깨달았고 타락할 필요가 없었고 비록 내가 그들에게 볼 수 없었을지라도 나에게 향할 수 있었다. 루시퍼가 자신의 의지를 존재 안에 넣었다는 말의 뜻은 그가 존재들이 타락하게 정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면 모든 존재가 스스로 이에 관한 결정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존재들은 자신의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자유의지가 있었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모든 충만함을 빛이 비추어 졌기 때문이다. 이 빛을 사용하지 않을 때 더 나은 깨달음에 대항하며 자신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의 의지에 남을 때 비로소 존재는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왜냐면 원래에 존재들은 최고로 온전하게 출발되어 나왔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었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을 선택할 수 있었다. 우리 둘의 사랑의 의지가 생성시킨, 첫 번째 창조 된 자에게 속했던 존재들도 타락한 것을 통해 이미 알 수가 있다.

영들의 타락은 끝 없이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났다. 이 기간 동안 루시퍼의 의지는 내 사랑의 힘을 받는 것에 따라 한때는 나에게 한때는 나를 대적하는 편으로 항상 또 다시 이러 저리 움직였다. 마찬가지로 그에 의해 창조 된 존재들의 의지도 한때는 나에게 한때는 나를 대적하는 편에 속했다.

그러나 그들의 타락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 그들이 자신들에게 최고의 빛을 비추어 주는 자를 자신들의 주인으로 결정했을 때 비로소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창조 하는 일은 빛의 전달자가 참여한 그러므로 단지 온전한 것만이 생성되어 나올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서로 나누는 일이었다. 그러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는 타락으로 인도할 필요가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여 존재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줄 수 있었다.

모든 존재에게 자신의 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면 그는 스스로 빛이 충만한 가운데 루시퍼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루시퍼를 깊은 곳까지 따라간 것은 겉으로 보기에 그들을 창조한자로부터 이미 받은 그의 부족함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자유의지이다.

그들이 밝은 깨달음의 빛 가운데 루시퍼를 따라 깊은 곳으로 타락한 것은 그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루시퍼에 의지에 의해 미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왜냐면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최고의 온전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1964년 11월 2일)

나는 나 자신이 모순되게 말할 수 없다. 이것은 내 계시가 담고 있는 가장 순수한 진리이다. 이에 모순이 되는 것은 내 영을 그 안에 담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할 수 있다: 너희의 영을 혼돈시키려는 내 대적자의 노력은 만약에 너희의 나와 의 깊은 연결이 부족할 때에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의 생각으로 개념을 혼동시키려는 그에게 기회를 줄 때에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아직 내가 너희를 한 사람이 빛을 구할 때 이 빛을 꺼버리기 위해 항상 또 다시 발명을 해내는 더러운 영들의 역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내 영의 역사를 너희 안에서 허용할 정도로 나와 의 관계에 서있지 않을 때 성공할 것이다. 내 사랑의 빛을 받는 자가 더욱 진지하게 나에게 다가올수록 더욱 확실하게 그에게 내 말이 울리게 된다. 그러면 이 말은 단지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빛의 전달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칠 것이다.

내 빛의 전달자 안에 순수한 진리에 대한 의지와 갈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게 주어진 진리에 대해 더욱 큰 확신을 그는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모든 기록들을 점검하기를 원한다. 왜냐면 항상 또 다시 내 대적자가 사람들 안에 불안함을 일깨우고 나 자신이 너희에게 알려준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너희는 그의 역사로 인해 너희 자신을 내 말씀의 진리로부터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나는 항상 너희의 영에 빛을 비추어 주어서 너희가 내 역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그가 공격하는지 언제 공격을 하는지 깨닫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루시퍼는 언제까지 창조할 수 있는가?

B.D. No. 5645

1953년 4월 6일

최 초로 창조된 존재가 완전하게 의지의 결정을 내릴 때까지 내 힘이 그 안에서 역사했다. 즉 빛의 전달자인 루시퍼가 아직 내 힘으로 충만한 동안에는 존재들을 생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하여 깊이 타락함으로 나와 의 간격으로 인해 항상 더 연약해졌고, 마침내 완전히 무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최초로 창조된 존재에게서 힘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나로부터 끝없이 멀어져 스스로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의지를 결정하는 일이 순간에 이뤄진 일이 아니었고, 이 결정은 또한 끝 없는 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왜냐면 루시퍼 안의 나를 대적하려는 의지가 서서히 커졌고, 이에 따라 루시퍼에 의해 생성된 존재도 루시퍼를 닮아 크거나 적게 나를 떠나려는 의지를 그 안에 가졌다. 최초로 창조된 존재가 아직 나와 완전하게 결별하지 않은 동안에는 그가 아직 창조하고 형성하는 일을 했다. 그러나 점점 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졌다. 그럴지라도 내가 제한을 가하지 않았고, 원래의 법에 따라 내 힘이 저항을 받으면, 효력을 잃었다.

최초로 창조된 존재가 내 사랑의 힘의 영역 안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가 창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항상 힘의 원천인 나로부터 힘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내 힘을 받으려는 그의 의지에 따라 창조할 수 있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의지를 가진 기간에는 마찬가지로 결정되지 않은 의지를 가진 무수히 많은 존재들을 창조하기에 충분했고, 그 후에 의지가 점점 더 나

에게서 멀어졌고, 최초로 창조된 존재가 더 이상 존재를 생명으로 생성되게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나와의 긴밀한 관계가 한때 내 사랑이 한때 창조한 존재에게 무한한 힘이 흐르도록 허용했다. 나와의 최종적인 분리가 피할 수 없게 완전한 무기력을 가져와야만 했고, 힘의 효력이 의지가 나에게서 멀어지는 만큼 감소했다. 그러나 존재가 내 힘을 사용하여 창조하는 동안에는, 존재는 나를 힘의 원천으로 깨달았다. 그러나 존재는 이런 깨달음을 자신이 생명으로 생성되게 한 존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

존재가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더 이상 나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하지 않았을 때, 의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는 힘을 거부했고, 이런 일은 나로부터 끝 없는 거리를 의미하고 따라서 무기력을 의미했고 그러므로 그가 깊은 곳으로 타락한 후에 그의 뜻대로 계속 존재들을 생성되게 하는 그의 권세가 꺾이게 되었다. 올바르게 이해하라: 반란의 첫 순간과 나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사이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창조된 존재는 그에 따라 형성되었고 그러므로 내가 의지의 결정을 요구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내 깨달음의 빛을 비춰줘야만 하는 일이 필요했다. 그러나 존재들 자신이 서로 다른 성품을 가진 것처럼 깨달음의 빛을 서로 다르게 활용했다.

그러나 존재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고, 존재가 창조된 방식이 결정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든 존재의 의지는 자유했고,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일을 이미 의도적으로 나를 떠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떠나는 일이 나 자신을 아직 힘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동안에는 남김없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동안에는 최초로 창조된 존재가 자신의 뜻대로 내가 그에게 제한이 없게 준 힘을 사용할 수 있었다. 왜냐면 존재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동안에는 그가 내 사랑의 흐름의 영역 안에 머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가 의식적으로 나에게 저항하고, 그가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창조하고 형성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힘이 충만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되기 위해 스스로 힘을 거절했을 때 그는 내 사랑의 흐름의 영역을 벗어났고, 내 힘이 이제 영원한 원래의 법에 따라 효력을 잃게 되었고, 존재에게 이제 어떤 창조하는 일도 가능하지 않게 되었고, 내가 이제 타락한 영적인 존재를 되찾기 위해 모든 사랑의 힘을 사용했다.

영적인 창조의 역사는 끝이 났고, 이제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피조물이 자유의지로 내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내 모든 사랑의 힘이 이 역사를 위해 사용되고, 내 대적자가 이 역사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내 대적자 자신이 무한한 힘을 가진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이 힘을 이제 내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타락을 하게 했는가?

B.D. No. 7932

1961년 7월 2일

언젠가 너희 사람들은 나 자신이 내 밖으로 자유하고 자립적인 존재로 생성되게 한 영적인 존재들에게 절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음을 지금까지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들을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로 창조 하였을 때 자유 의지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 자유의지는 아주 작은 영향력이라 하더라도 내 뜻에 내 사랑의 비추임에 또는 어떠한 영향 아래 묶여져 있지 않았다. 이 의지는 전적으로 자유 했고 모든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존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언젠가 피조물의 상태에서 변화되어 자녀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을 한다. 자녀가 되는 일은 자유의지가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그러나 존재를 창조할 때 내 목표는 최고로 온전한 상태에 있는 존재로써 그러나 이런 온전함에 스스로 도달해야만 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너희 사람 안에 나를 떠나 타락하려는 생각을 내가 존재에게 넣어 주었는지 내가 존재를 창조할 때 올바른 자녀들을 만드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존재들이 타락을 해야만 하지 않았는지 항상 질문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타락해야만 했으면, 너희는 타락한 원인이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 존재들의 자유의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영원으로부터 내 피조물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보았고 그러므로 이런 타락에 기초한 목표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타락뿐만 아니라 이런 목표도 나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타락은 자유의지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타락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목표는 다시 자유의지의 결과이다. 이 목표에 언젠가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존재가 스스로 다시 목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한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가 다른 하나에 근거함을 내가 존재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타락하는 일이 있을 수 없었음을 말해야만 하고 그러면 내가 모든 존재를 창조했을 때 가졌던 목표가 이 전의 측량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시간 가운데 이뤄졌을지라도 존재들에게 단지 최고의 축복을 의미하는 목표가 필요 없음을 말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유의지로 존재들이 타락한 것은 나에게 내 사랑에 대항하는 범죄였다. 왜냐하면 존재들이 자신의 의지를 내 의지와 같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존재들이 나를 떠나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벗어날 필요가 없었다. 셀 수 없이 많은 나에게 머물렀을지라도 넘치게 축복된 존재들이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벗어날 필요 없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이런 존재들에게 만약에 그들이 타락한 형제의 구원을 위해 깊은 곳의 과정을 가기 원하면, 하나님의 자녀 권에 도달할 수 있게 허용이 되었다. 나를 떠나 타락한 일은 내 작품이거나 내 뜻이 아니다.

그러나 최고로 높은 목표 때문에 내가 타락하게 놔두었고 나는 항상 또 다시 존재들이 최고의 사랑 가운데 있었음을 그들에게 가장 밝은 빛이 비쳤음을 그러므로 그들의 의지가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한 일은 그들의 의지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이로써 불행한 상태를 가져왔다는 것을 강조한다. (1961년 7월 2일)

나는 타락을 방해하지 않았다. 방해했으면 나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는 증거인 의지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의지의 자유가 없는 온전함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언젠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표에 도달하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내 계획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비록 타락이 내 사랑에 대적하는 큰 죄일 지라도 영들이 타락한 것을 다르게 관찰할 것이다. 영원한 질서의 법칙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처럼 만드는 일은 항상 단지 법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를 창조할 때 그들 안에 넣어 준 모든 신적인 성품들을 자유의지로 추구해야만 하고 나를 떠나 타락함으로 인해 추구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고 자유의지로 온전한 상태에 남는 것보다 더욱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존재들이 타락했다는 것은 나를 대적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주 긴 기간 동안 극심한 고통의 상태를 그들에게 가져오게 했다.

나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이런 타락을 하게 원인을 제공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존재들이 온전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럴지라도 존재들은 타락했다. 이는 단지 신적인 은혜의 선물이고 그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의지의 자유로 설명할 수 있다.

타락한 영의 존재들의 귀환의 과정을 통해 타락하지 않은 영의 존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권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존재들은 자유의지로 구속하는 사명 때문에 깊은 곳으로 향하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기 위해 나를 떠나 타락한 것만이 유일한 조건이 아니다.

나는 진실로 내가 창조한 존재들을 내 자녀로 만들기 위한 다른 길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타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의지의 자유 때문에 타락하는 일은 가능했다. 나는 영원으로부터 타락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창조한 존재들을 넘치게 축복 되게 하는 내가 언젠가 도달할 목표를 가진 구원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너희 자신이 언젠가 전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되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해당되는지 이 사랑이 항상 단지 선한 것을 줄 수 있고 그러므로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음에 도달한 존재들을 다시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도울 것임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유의지가 타락의 원인이다. 하나님처럼 되는 일.

B.D. No. 6991

1957년 12월 11일

나로부터 단지 온전한 것만이 생성되어 나온다. 가장 깊은 사랑과 가장 높은 지혜가 모든 것을 생성되게 하고 내 권세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로부터 최고로 온전한 내 형상으로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존재를 생성할 수 있다. 그는 나 자신의 축소 형으로 창조되었다. 이런 내가 창조한 작품들에게 같은 행복을 주기 위해 그들이 창조한 작품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빛과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창조하고 역사하게 하는 일이 나 자신에게 최고의 행복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에게 창조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흘러갔고 그들이 마찬가지로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단지 내 의지를 실행하는 존재였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에게 흘러가는 사랑의 힘과 함께 내 의지가 모든 존재들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나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부여한 채로 이로써 자유의지가 모든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게 생성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항상 단지 내 피조물로 남았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비로소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온전함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

내 의지가 그들을 정하는 동안에는 그들은 절대로 그들이 온전한 상태를 잃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그에게 온전함을 잃을 가능성을 주었다. 그러나 반면에 피조된 존재가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 자녀처럼 내가 역사하고 조성하는 일에 자원해 참여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와 내 의지에 전적으로 일치된 가운데 참여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내가 내 사랑과 내 권세로 존재를 창조하였을 때 추구했던 최고의 목표에 비로소 도달했다. 왜냐하면 그러면 존재는 자신의 온전함을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존재는 제한이 없이 축복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일이 모든 존재에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었을 때 나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존재들은 온전했다. 존재들은 단지 이런 온전한 상태에서 머물기를 원하기만 하면 되었다. 존재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타락한 것은 그의 능력과 빛을 의식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존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빛과 능력이 충만한 것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존재는 존재들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존재들을 축복되게 해주기 위해 선물한 내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 단 한 가지의 거만한 생각이 이미 깨달음의 빛을 흐리게 했다. 그의 의지가 자유했기 때문에 연이어 항상 더욱 자신의 의지를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하게 한 잘못 된 생각을 했다.

온전한 존재가 타락하는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너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은 어렵다. 온전함은 항상 빛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적인 깨달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넘치게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바로 이런 의식이 존재로 하여금 빛보다 자신 안의 능력을 더 많이 생각하게 했다.

능력이 충만함이 존재를 작게 거만하게 만들었고 이로써 빛이 즉시로 흐리게 되었다. 존재는 계속하여 나와 같이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창조물들을 창조할 능력이 있었다. 나 자신을 능력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그의 생각을 물리치는 일이 시작되었다. 존재는 나에게 의존되어 있는 관계를 더 이상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존재가 한번 이런 생각하였을 때 그는 이런 자신의 의지에 방향의 꿈쩍한 결과를 개관해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로부터 자유롭게 생성된 존재는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바꿀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온전함이 존재에게 강요의 상태를 의미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존재는 진실로 내 형상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이런 자유를 존재는 항상 소유할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만든 온전

함에서 내가 추구하는 목표대로 내 자녀가 되고 영원히 내 자녀로 머무는 일에 도달하기 위해 다시 최고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

나는 절대로 이런 자녀들을 창조할 수 없다. 왜냐면 신적인 특성인 자유의지가 스스로 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나에게 의해 그에게 주어진 온전함 가운데 자유의지로 머물기를 원할 수 있다. 또는 존재가 이런 의지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으면, 스스로 다시 자유의지로 잃어버린 온전함의 정도를 얻어야만 한다. 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내 영원한 구원계획을 이해할 것이다. 그는 단지 끝없는 사랑과 지혜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음을 알 것이다.

왜냐면 나는 내가 창조한 존재에게 영원히 최고의 축복을 의미하는 운명을 마련해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내 사랑과 지혜와 권세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영원한 내 구원계획대로 나에게 의해 생성된 모든 존재가 최고로 축복된 가운데 내 곁에서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기까지 이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아멘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의 의지의 시험.

B.D. No. 8055

1961년 12월 5일

한 때 존재가 나에게 의해 창조되게 되었다. 이 존재는 이제 내 가장 철저한 원수와 대적자가 되었다. 이 존재는 마찬가지로 내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 나에게 의해 첫 번째 존재로서 창조되었다. 왜냐면 내가 내 사랑을 부여 줄 수 있는 그릇을 창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아주 크고 사랑은 자신을 전해주기 원했다.

내 의지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내가 내 사랑의 힘으로 비추어 줄 수 있는 내 형상으로 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는 넘치게 온전한 한 존재를 창조했다. 나는 나 자신을 선물해 주기를 원했다. 나는 내 측량할 수 없는 빛과 능력의 충만함에 반응을 찾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의 흐름을 받을 수 있는 한 존재를 이 존재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내 형상인 존재를 창조하기를 원했다.

내 모든 사랑이 존재에게 향했다. 나는 이 존재를 행복하게 했고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데서 나 스스로의 행복을 찾았다. 그는 최고의 권세와 능력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 그는 나 자신의 반사체였다. 넘치게 온전한 존재로서 그 안에 나와 같은 의지와 창조하려는 열망을 자신 안에 가지고 이제 나와 함께 비교할 수 없이 축복되었다. 존재도 역사를 했다. 그는 그의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같은 존재를 창조하는데 사용했다.

그의 의지는 나로부터 그에게 흘러 들어가는 능력을 사용했고 항상 또 다시 새로운, 그와 마찬가지로 최고로 온전한 존재를 생성되게 했다. 왜냐면 내 사랑의 힘으로부터 단지 온전한 것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최초로 창조된 존재는 나와 같은 의지 가운데 같은 빛 가운데 나와 가장 깊은 사랑으로 연합이 된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그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축복을 항상 다시 같은 존재를 창조함으로써 표현했다. 이 상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속되지 못했다.

모든 창조 된 것은 내 사랑의 역사였고 온전했다. 왜냐면 나로부터 어떠한 온전하지 못한 것이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창조 된 존재에 대한 내 사랑은 넘치게 강력했다. 그의 사랑도 실제로 깨달을 수 있었지만 볼 수는 없었던 나에게 속했다. 나는 이 존재에게 끊임없이 내 사랑을 비추어 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나에게 같은 만큼 사랑하게 강요하지 않았고 나는 그가 내 사랑을 응답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존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

왜냐면 자유의지는 원초부터 온전함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 의지는 존재에게 언제든지 보일 수 있었다. 내 의지는 내 말 안에 들어 있었다. 말을 통해 창조주가 자신의 피조물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이것이 생각이 형체가 된 말씀이다. 이 말씀이 존재에게 비추어 졌고 존재도 이에 대답할 수 있어 서로 간에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런 교류가 존재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측량할 수 없이 행복하게 했다. 이처럼 존재는 내 의지를 알고 있었고 사랑으로 전적으로 내 의지를 따랐다. (1961년 5월 12일)

나는 그의 사랑을 시험해 보기를 원했다. 그는 신적인 존재로서 어떠한 강요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만이 유일하게 그의 의지에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원할 수 있었지만 나를 향한 사랑이 전적으로 자유의지 가운데 내 의지 안으로 들어갔는지를 나에게 증명을 해야 했다. 내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는 자신의 의지로 내가 그에게 끊임없이 흐르게 하는 사랑의 힘으로 셀 수 없이 많은 같은 성품을 가진 존재들을 창조했다.

항상 그의 의지는 내 의지와 일치되어 있었다. 왜냐면 가장 깊은 사랑이 그와 나를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창조하는 역사가 존재를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했다. 그는 계속하여 사랑의 힘을 받았다. 그는 내가 그에게 모든 자유함 가운데 자신의 의지를 요구하였을 때까지 이런 사랑의 힘을 계속하여 내 의지 안에서 사용했다.

다시 말해 존재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는 단지 사랑을 통해 나와 연결이 된 자유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에게 자신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의식이 들어오게 되었다. 존재는 나로부터 그에게 흘러 들어가는 생각인 내 말을 자신 안에서 생각해보고 스스로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의 입장이 부정적으로 되는 것은 가능했다. 다시 말해 자유의지로 저항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최고로 빛과 능력의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최고로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단지 능력을 받는 자이고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고민했다. 자신을 생각으로 이에 순응하는 것이 내 의지의 시험이었다. 최고의 빛의 영은 만약에 자신의 사랑이 충만해 자유의지 가운데 자신을 자신의 창조주인 나에게 복종시켰을 때 진실로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자신의 위치가 절대로 낮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그를 향한 내 사랑이 아주 커서 그가 나로부터 의존되어 있다고 느낄 필요가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의지의 시험에 합격했으면, 이제 더 이상 단지 내 역사가 아니라 그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의지로 증명이 된 그의 축복이 그의 온전함이 더욱 성장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존재는 실패했다. 빛의 존재가 내 대적자인 루시퍼가 되었다. 그는 나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생명으로 불러 낸 수많은 존재들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이 거대한 능력을 가졌다는 이런 그의 의식이 그를 거만하게 했다. 그는 자신을 높이 세웠고 계속되는 내 모든 사랑의 비추임을 거절했다. 이것이 나로부터 떠나가게 된 영원한 기간 동안에 일어난, 너희 사람들에게는 단지 그림언어로만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이다. 왜냐면 영적인 동기는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형상을 창조했다. 그는 스스로 반대가 되었다. 모든 빛의 충만함 가운데도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왜냐면 그는 전적으로 자유한 존재였고 어떤 방식으로든 강제 가운데 있거나 생각하는 것이나 의지하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라도 깊은 곳을 향한 그의 타락과 수많은 존재들의 타락은 모든 최고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길이다.

왜냐면 그는 신들처럼 바뀌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는 창조된 존재가 자유의지로 스스로 완성시켜야만 한다. 내 사랑의 작품이 나를 떠나갔다. 그는 자신의 원래의 요소가 사랑이었다. 이것 변화되어 더 이상 자신을 선물하지 않고 소유를 갈망했다. 그러므로 내 원래의 성품과 반대가 되었다.

그러나 존재는 나로부터 비추임을 받은 사랑의 힘으로써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따라 거절할 수 없이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 그러나 존재는 먼저 다시 변화가 돼야만 한다. 자유의지 가운데 변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모든 한때 타락한 존재들도 비록 이를 위해 영원에 영원의 시간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이런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내 끝없는 사랑에서 나로부터 처음으로 창조되어 나온 존재도 자신 안의 이런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전에는 자신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 대적하는 극으로 섬기던 존재는 최고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의 나라도 나를 섬기기 때문이다. 그 자신도 비록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라 할지라도 함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완성을 위해 일한다.

아멘

루시퍼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원인

B.D. No. 8672

1963년 11월 13일

내가 나 자신의 축소판을 생명으로 불러 일으켰을 때 선물해 주기를 원하는 내 끝없는 사랑을 부여줄 수 있기 위해 그릇을 창조했을 때 내 사랑이 능력으로 역사했다. 이 능력은 창조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했다. 내 능력을 모든 그릇에 부여했기 때문에 나로부터 창조된 존재는 다시 같은 방식으로 창조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

왜냐면 이들은 내 형상이 같은 창조하고자 하는 열망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계속하여 흘러 들어가는 능력이 역사하게 자극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능력의 근원인 나에게서 흘러 나가는 능력이 계속하여 생명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모든 존재들이 모든 종류의 창조물들을 창조할 때에 어떠한 제한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이 가운데 그들 자신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은 끝이 없어서 내 사랑의 힘이 모든 존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흘러 들어 갔기 때문이다.

이런 존재들이 창조 일을 중단이 되지 않았다. 왜냐면 내 능력은 제한이 없고 절대로 소진될 수 없고 한때 나로부터 배출되어 나온 모든 존재들이 자신을 나에게 열어 두는 동안에는 다시 말해 내 사랑의 비추임에 저항을 하지 않으면, 창조하고 조성하기 위해 나로부터 제한이 없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영원히 흘러 들어 가서 항상 영원히 창조물들이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축복된 상태는 진실로 중단될 필요가 없었다. 왜냐면 나에게 의해서는 절대로 존재들에게 제한을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력이 줄어들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존재들의 넘치는 축복된 상태에 존재들이 부족하게 여기는 것이 원인이 되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 자신이 그들에게 같은 존재로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실제로 나를 자신들이 창조되어 나온 자신들의 아버지로 알았다. 그러나 나 자신을 그들이 볼 수 있게 그려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를 내 온전함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자신 안에 잘못 된 생각하기 시작했다. 왜냐면 그들은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 질문을 했으면 나는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었을 것이고 이로써 그들은 그들의 잘못 된 생각을 깨닫고 수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적인 내 온전함에 대한 의심에서 그들은 나에게 감출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나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강요를 하지 않고 그들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놔두었고 그들은 이 자유를 잘못 사용했다. 왜냐면 그들은 첫 번째로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존재로써 모든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빛 가운데 빛나는 존재 안에도 같은 의심이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존재는 실제로 나에게 영원에 영원 동안 전적인 사랑을 나에게 드렸다. 그는 그의 의지가 자유하였지만 이런 사랑 가운데 나와 같은 의지 안에서 넘치게 축복되었다. 그러나 한 동안 이 빛으로 비추어진 존재에게도 의심이 일어났다. 왜냐면 나는 그에게도 보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나에게 대한 큰 사랑이 항상 또 다시 솟아오르는 의심을 물리쳤다. 그는 자신을 나에게 드렸고 내 능력을 사용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 같은 성품을 가진 존재들을 계속하여 창조 하는데 자신의 축복을 느꼈다. 그러나 나에게 대한 의심이 항상 또 다시 일어났고 그는 할 수 있었던, 이 의심을 나에게 알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심을 하는 가운데 이 의심을 키워 나갔고 그의 나를 향한 사랑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로써 그는 자기 자신이 연약해졌다.

왜냐면 그의 연약해진 나를 향한 사랑이 내 사랑의 흐름을 즐겼고 창조적인 일에 제한을 주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가 나를 볼 수 있었다면, 그에게는 나로부터 떠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의 불이 그를 삼켜 버렸을 것이다. 왜냐면 어떤 피조물도 소멸되지 않고 내 사랑의 근원의 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알고 있었다. 왜냐면 그는 최고의 빛이 충만한 깨달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가장 밝은 빛과 가장 완성 된 아름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나보다 더 크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장난을 계속했다. 그는 자신보다 더 빛과 아름다움에서 능가하는

어떤 존재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창조 된 존재들에 대한 지배권을 요구했다. 실제로 그는 이 모든 존재들을 생성시킨 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나로부터 받았다. 그는 이제 영적인 존재들의 무리를 통해 자신의 권세를 보았고 그러므로 나로부터 능력을 받을 필요 없다고 믿었다. 그는 수많은 존재들을 창조함으로써 이들을 나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믿었다. 그는 내가 그에게 나를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을 내 무기력함의 증거로 보았다. 나는 그가 믿음대로 그를 놔 두었다.

왜냐면 나는 그를 전적인 자유로운 존재로 나로부터 생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그가 영원 동안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될 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의 생각과 의지를 바꾸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능력은 이제 저항과 거절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내 능력은 전적으로 역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나에 의해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는 어떠한 창조물을 창조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크고 강력하다고 믿었다. 왜냐면 자신과 같이 나를 대적해 거절하고 내 사랑의 비추임을 거절한 수 많은 영적인 존재들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도 모든 행하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

왜냐면 그들도 끝 없이 나로부터 멀어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자유의지였다. 그러나 나는 이 의지를 존중하여 그들이 다시 자유의지로 나에게 가까이 올 때까지 내 사랑의 비추임을 구할 때까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나에 의해 첫 번째로 창조 된 이제 내 대적자가 된 존재도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는 길을 갈 것이다. 그도 언젠가는 내 사랑의 비추임을 그리워할 것이고 이를 자유의지로 다시 나로부터 받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비록 영원에 영원의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자신의 반발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때 나에 의해 능력으로 발출되어 나온 모든 존재들은 거절할 수 없이 영원한 능력의 근원인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일은 무지와 같다.

B.D. No. 6765

1957년 2월 18일

존재의 모든 축복은 진리를 깨닫는 일에 있다. 존재는 한때 빛 가운데 있었고 가장 높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존재는 넘치게 축복됐다. 왜냐면 그가 내 사랑과 지혜와 권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또한 자신의 사명을 알았다. 그는 끊임없이 내 사랑의 힘으로 충만했고 그에게 전혀 어두움이 없었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없었고 그의 의지와 힘에 제한을 가하는 어떤 것도 없었다. 이런 상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된 상태였고 가장 빛으로 충만하고 내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그가 내 생각을 깨달을 수 있는 영역에 거하는 상태였다.

내 원래의 성품이 나에 의해 창조 된 모든 존재에게 쉬지 않고 흘러갔고 이런 일이 존재 안에 제한이 없는 축복을 주었다. 그러나 존재의 상태가 바뀌었고 나에 의해 최초로 창조 된 존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그의 의지가 나에게 대항했을 때 그는 자신에게 풍성하게 흘러오는 것을 자유의지로 거부했고 이런 과정은 한때 나에 의해 생성 된 모든 영적인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존재는 실제 마찬가지로 최고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내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의 성품이 나보다 절대로 열등하지 않았고 그가 단지 영원으로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의해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내 의지와 내 사랑이 비로소 그를 생성되게 했다. 이런 존재가 자신에게 시작점이 있지만 내가 영원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을 부러워했다. 그가 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모든 피조물들의 주님으로 세웠고 또한 큰 부분의 피조물들이 가장 밝은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들의 주님으로 인정했다. 존재는 아직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든 속성을 잃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신적인 존재라는 특성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고 이로써 사랑이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존재는 어둠 속으로 가라 앉았다. 그의 상태는 축복되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빛과 힘이 없게 되었고 그는 영원에 영원한 기간 동안 이런 불행한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최초로 창조 된 존재와 그의 추종자들의 의지가 영원한 진리이고 영원의 빛인 나 자신을 물리칠 수 없었다. 그는 실제 나를 인정하는 일을 거부할 수 있고 나를 떠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나를 패배시키고 소멸되어 사라지게 할 수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권세를 가진 가운데 머문다. 내가 원하면,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도 내 권세 앞에 복종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가 자원하여 추구하는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존재가 깊은 곳에서 다시 올라오기를 원하고 다시 나에게 향해 다가오기를 원하고 다시 나로부터 힘과 빛을 받기 원하면, 나는 또한 존재에게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가 원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 그들에게 깨달음이 부족하고 그에게 빛과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다시 빛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준다. 나는 존재들이 끝없이 긴 성장 과정을 거친 후에 원한다면,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다시 되게 한다. 이런 상태는 인간의 상태이고 내가 존재에게 다시 진리를 제공하고 이로써 존재가 다시 축복된 상태가 되게 한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이런 일을 성취시켜야만 한다.

존재가 한때 소유했던 것을 그가 이제 먼저 얻어야만 한다. 그러나 얻으려는 이런 의지는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그러면 존재는 이전의 빛의 정도를 초과하는 빛의 정도에 도달하게 된다. 왜냐하면 존재가 이제 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 깊은 곳에 머물 자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동인이 되어 높은 곳을 추구했고 이제 말할 수 없게 축복되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다시 진리의 빛 안에 거하기 때문이고 모든 어둠이 그로부터 물러나기 때문이고 모든 신적인 성품이 존재를 충만하게 채우기 때문이고 그가 이제 내 대적자에 의해 나를 떠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나를 떠난 처음으로 창조 된 존재의 죄는 훨씬 더 크다. 그러므로 나에게 귀환하는 길을 가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 제한이 없는 축복을 단지 그의 아버지인 나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내 영원한 구원계획은 내 대적자가 나에게 저항하며 나를 떠나 타락해 깊은 곳으로 떨어진 후에 묶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 대적자는 내 사랑으로 첫 번째로 나에게 의해 창조되었다.

나는 그를 내 형상에 따라 창조했다. 그러므로 그는 상상할 수 없게 빛과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넘치게 권세가 있고 지혜롭게 내 편에서 있었다. 그는 가장 축복된 피조물이었다. 왜냐면 최고의 축복을 주는 항상 또 다시 모든 존재들의 축복을 높여주기 원하는 내 사랑이 그에게 쉬지 않고 흘러 갔기 때문이다. 존재가 나 자신을 볼 수 없는 반면에 나는 존재를 볼 수 있게 나에게 의해 창조된 존재 안에 내 원래의 성품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존재는 나를 알았다. 존재는 내가 그를 생성되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 존재는 행복하게 하는 사랑의 힘을 나로부터 받았음을 알았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이런 지식을 내 형상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그와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그에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말씀이 각인된 생각으로 그 안에서 들렸고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을 돌려줄 수 있고 이로써 우리 사이에 축복된 교제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끝이 없는 사랑이 응답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내 사랑이 자신을 흘러 보내줄 수 있는 그릇을 구했다. 내 사랑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대상을 영원히 가장 축복된 상태를 갖게 해줄 대상을 구했다.

이 계획은 실제 나에게 의해 영원 전부터 세워졌다. 그러나 이 계획은 존재가 내 계획을 따를지에 관한 질문은 언제든지 응답하지 않은 상태로 놔뒀다. 왜냐면 존재는 모든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로 창조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이 정할 수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 나에게 의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내 생각이 말씀의 형태로 그 안에서 들렸을지라도 존재는 나와 같이 생각하고 원하게 강요받지 않았다.

그는 내 말을 모든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동인이 되어 말씀에 내가 부여하지 않는 의미를 둘 수 있었다. 그가 헌신하는 사랑으로 내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을 여는 동안에는 그의 생각과 원하는 것이 나와 전적으로 일치된 반면에 그가 그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게 대한 잘못된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

그러나 존재도 바로 이런 능력을 의식했다. 그러므로 존재는 이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형성시키기 위해 내 사랑을 능력을 거부하는 상태에 빠지는 시도를 했다.

내 사랑이 존재에게 제공한 제한이 없이 축복된 끝 없이 긴 기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이런 시도가 이뤄졌다.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가 나와 가장 긴밀한 교제를 하는 동안에는 교제하기 위한 갈망과 내 형상의 증거로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향한 갈망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을 생명으로 창조할 정도로 창조적인 일을 행했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창조하는 일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쉬지 않고 제공했다. 그러나 존재가 그에게 흘러가는 내 사랑의 힘을 거부하려는 첫 번째 시도를 하였을 때 이제 잘못 된 생각하게 되었고 일시적으로 창조하기 위한 능력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존재도 축복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고 순수한 사랑으로 다시 나에게 돌이켜 내가 존재를 옛날처럼 다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고 최고로 온전한 존재들을 창조하는 일이 다시 계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횟수가 증가되었다. (1957년 10월 25일)

왜냐면 존재가 항상 또 다시 자신 안에서 내가 없이 같은 일을 행하고 창조할 수 있는지 계산해보았기 때문이다. 존재는 자신이 창조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존재가 나로부터 격리되어 이로써 나를 거부하고 사랑의 힘의 제공을 거부하면서 시험해보았다.

그렇지라도 그는 자신에게 남아 있는 능력을 자신의 뜻을 따라 존재를 창조하는데 사용했다. 이로써 창조된 존재는 이미 어느 정도 그의 의지를 자신 안에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항상 단지 짧은 기간의 시도였다. 존재는 내 사랑의 힘을 통해 행복해지기 위해 항상 또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항상 대적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사랑의 힘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을 아는 빛의 전달자인 존재가 나를 시기했다. 그는 항상 계속하여 새로운 존재를 창조해 내 사랑의 힘이 없어지게 만들고 이 존재들을 자신이 소유하고 이로써 나를 연약하게 만들 생각을 했다.

반면에 그는 나를 제외시킨 내 능력의 증거로 인해 기뻐하고 권세와 능력에서 나를 능가하기 원했다. 이런 생각이 그에게서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니고 유일한 잘못 된 생각이 잘못 방향을 잡은 순간적인 생각이 항상 새롭게 잘못 된 상상을 하는 공간을 부여했다.

빛의 전달자는 자신에 대한 갈등에 빠졌다. 그가 이에 관해 나와 대화를 나누었다면, 실제 나와 대화하는 일이 그에게 가능했고 그는 이런 갈등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내 사랑의 힘을 계속하여 받았다.

바로 이런 지속적인 사랑의 힘의 제공이 그로 하여금 이런 능력의 제공이 실제로 그가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달았던 분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킬지라도 영원히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 된 생각에 도달하게 했다.

그러나 모든 나를 대항하는 생각이 능력의 제공을 약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가 나를 전적으로 떠나기까지 이로써 그가 창조할 수 있게 해준 능력의 제공이 중단되기까지 그를 항상 더욱 나에게 대항하게 했다. 그러나 이런 끝이 없는 긴 기간 동안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내 뜻 가운데 내 능력을 사용한 가운데 창조되었다. 그들의 내면의 상태는 그들의 창조자가 창조할 순간에 나에게 대해 어떤 상태에 있었던 그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내 사랑의 힘은 모든 존재들을 채우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들이 창조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랑의 힘이 같은 크기로 모든 이런 존재들을 그들을 잉태한 자가 그에게 향하게 재촉하는 것과 같이 나에게 향하게 재촉했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잘못 된 의지를 존재 안에 넣어 주었을지라도 그들 안에 내 사랑의 힘이 그들 안에 비추어 준 깨달음의 빛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시에 내 대적자가 존재들을 생성하였을 때 존재들은 아직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도 그가 자신을 최고의 존재로 나타내 보였을 때 어떤 창조 된 존재도 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쉽게 믿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사랑이 나에게 향하게 재촉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자가 그들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받기 원했다.

그는 나를 내적으로 대적하는 순간에 창조하는 역사가 이뤄진 존재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나는 이런 모든 혼들에게 내 빛을 비추어 주었다. 혼들은 마찬가지로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혼들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므로 혼들은 그의 소개를 믿을 필요가 없고 그를 인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혼들의 의지는 자유 했다. 혼들은 나로부터 그리고 내 대적자로부터 강요받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 스스로 내 대적자를 위한 결정을 하면서 죄를 지었다. 그러나 혼들이 나를 볼 수 없을지라도 혼들은 나를 깨달았다.

그러나 혼들은 자유의지로 혼들이 볼 수 있는 자를 따랐다. 이는 동시에 더 나은 지식과는 반대되는 결정이었다. 그러므로 존재를 전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영을 어두운 상태에 빠지게 하고 모든 능력을 빼앗기게 만든 이 일은 아주 큰 죄이다.

왜냐면 혼들이 내 대적자를 깊은 곳까지 따라 갔을 때 혼들이 내 사랑의 힘을 의식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때 모든 존재들이 어떤 온전한 상태로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 모두 안에 얼마나 밝은 빛이 비쳤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빛을 포기하고 그들을 어두움으로 인도한 자를 따른 죄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대적자 의지를 통해 이 전에 모든 깨달음을 빼앗겼다면, 이런 모든 타락한 존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내 사랑의 힘의 작품이고 그러므로 그들은 내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빛의 존재로써 그들이 결정하게 요구받았을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반대로 향하게 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에 합당하게 나와의 간격이 존재하게 되었다. 나에게 귀환하는 일은 영원한 기간이 필요하고 한때 타락한 모든 존재가 대신 속죄를 행한 인간 예수의 속죄를 인정하고 속죄 받기 원하면, 비로소 나에게 귀환이 이뤄질 수 있다.

아멘

존재들의 하나님을 떠난 타락.

B.D. No. 7471

1959년 12월 5일

원래 초기에 모든 존재들은 가장 밝은 자신의 온전함을 발산했다. 존재는 하나님과 같았다. 존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들 안에서 영원한 신성이 반사되었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가장 작은 크기로 다시 찾아 볼 수 있었다. 왜냐면 존재들은 자신의 사랑의 불에서 발산 된 불씨였기 때문이다.

존재들은 영원한의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발산되어 나왔다. 이런 존재들은 넘치게 축복되었다. 그들은 아버지 가까이 있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축복되게 해주는 사랑의 힘을 받았다. 그들은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지인 그들의 의지를 따라 창조하고 조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존재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을 가진 상태에서 머물지 못했다. 왜냐면 의지는 자유하고 하나님께 향하게 강요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지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떠나 반대의 극으로 향할 수 있었다. 존재는 그렇게 행했다. 존재는 자신의 의지를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하게 했다.

그러나 존재가 최고로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 존재는 이 의지의 시험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정하게 요구받았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의 능력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는 것을 알았고 창조주의 능력은 그들에게 계속해 사랑의 힘을 충만하게 비추어 줌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창조의 능력을 볼 수 없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로 창조된 영광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는 가운데 그의 의지로 자신들을 존재로 생성시킨 존재를 볼 수 있었다. 그들에게 계속하여 비추이는 사랑의 빛을 통해 최고의 깨달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들은 루시퍼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들이 창조된 과정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밝게 빛나는 루시퍼 볼 수 있었다. 반면에 하나님 자신은 그들에게 볼 수 없었고 볼 수 없게 머물렀다. 그들은 이제 영원한 자신들의 창조주요 조성자를 위한 결정해야 했다. 존재들의 의지가 나뉘었다. 일 부분은 자신의 창조주에게 신실하게 남았다. 이 존재들은 창조주를 유일하게 역사하는 능력의 근원으로 깨달았다. 반면에 대부분은 비록 그들에게 깨달음이 부족하지 않았을지라도 현혹된 생각 가운데 볼 수 있는 영에게 향했고 루시퍼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모든 아름다움으로 빛나던 루시퍼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과 결별은 존재가 어두워지기까지 존재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단지 존재들을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 있는 자를 주님의 여기게 되기까지 끝 없이 긴 기간이 걸렸다.

그러나 초기에 루시퍼는 가장 밝은 빛으로 빛났다. 이 기간 동안에 존재들이 루시퍼를 위한 결정을 했다. 존재들이 자신들의 빛나는 생산자를 향했을 때 그들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뒤로하였을 때 타락이 이미 이뤄졌다. 타락 후에 비로소 그들의 영은 어두워졌다. 타락한 후에 존재들은 어두움에 빠졌다.

어두움은 깨달음이 없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영들이 이 어두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의지의 결정을 한번 해야만 한다. 자유의지는 어떤 방향을 향할지 시험받아야만 한다. 왜냐면 만들어줄 수 없고 존재가 스스로 만들어야만 하는 존재의 상태와 최고의 온전함이 의지의 방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타락한 것이 그들이 언젠가 다시 올바르게 의지를 활용하는 일을 다시 하나님께 귀환하는 길을 택하는 일을 막지 않는다. 이런 귀환은 자녀를 완성된 자녀로 만들어 이로써 원래 초기에 창조된 존재들이 가졌던 것보다 더 높은 정도로 축복받게 한다.

그러나 존재가 다시 온전하게 바뀌는데 끝 없이 긴 기간이 걸린다. 최고의 온전함에 도달하려면, 항상 자유의지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제 존재가 갈망하던, 볼 수 있는 하나

님인 존재가 온전하게 된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께 남김 없이 드려야 하는 자유의지는 항상 또 다시 시험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단지 온전한 존재들을 창조했다.

B.D. No. 8797

1964년 4월 3일

나로부터 나와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기 위해 내가 창조한 단 하나 존재인 빛의 전달자 루시퍼가 생성되어 나왔다. 이 때문에 그는 내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최고로 온전한 가운데 나로부터 나왔고 내 생각으로부터 내 앞에 존재하게 되었고 빛과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즉 나로부터 어떤 부족한 것도 생성되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와 다를 상태일 수도 없는 가운데 있었다. 나는 이 존재를 내 기쁨을 위해 창조했다. 왜냐면 내 원래의 상품이 사랑이고 사랑은 항상 행복하게 해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에는 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나 자신의 반사체였다. 나 자신이 나로부터 창조된 존재 안에서 나를 보았다. 그는 말하자면 내 두 번째 나였고 그 안에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가 되어 있어 나 자신과 같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말을 수 없이 축복 되었다. 왜냐면 내 사랑의 힘이 항상 그에게 흘러들어 갔기 때문이다.

나는 내 창조적인 능력 가운데 넘치게 축복했고 이런 같은 축복을 한 존재에게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같은 존재를 내 옆에 갖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의 축복에 이제 내가 기뻐할 수 있었다. 내 근원적인 요소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곧 능력이다. 내 사랑의 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머무를 수 없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영적인 창조물들을 생성시켰다. 그러나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런 창조물들을 기뻐할 수 없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나 자신과 똑같이 성품을 가진 내가 영원한 존재인 반면에 단지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 한 존재를 즉 한 형상을 창조하게 했다. 나는 내 의해 창조된 존재에게 내 사랑의 힘을 비추어 주는 것을 통해 축복할 수 없는 축복을 누렸다. 이 존재는 이제 같은 사랑에 능력으로 충만하여 그도 마찬가지로 창조적으로 일하기를 원했고 일할 수 있었다. 왜냐면 그는 전적으로 자유 했기 때문이다.

존재들은 내 사랑 안에서 전적으로 성장했고 이는 항상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다. 왜냐면 내가 존재에게 주는 사랑을 그들은 다시 나에게 마찬가지로 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 존재는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전적으로 내 안에서 싹터 올랐다. 이는 방해받지 않고 사랑이 흘러들어간 것을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에게 방해받지 않고 능력이 흘러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빛의 영의 창조가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둘의 사랑의 힘으로 셀 수 없이 많은 같은 존재들을 창조했을 때 이런 축복이 이들에게도 함께 하게 되었고 그들은 최고로 온전한 가운데 넘치는 축복 가운데 있었다. 이 과정에 대해 너의 인간들에게 내 계시를 통해 이미 자주 설명을 했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누가 높은 최고로 높은 빛의

존재의 창조자인지 질문을 한다. 왜냐면 너희는 인간으로서 이미 원래 창조 된 빛의 존재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죄로 인해 더 이상 전체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든 원래의 영들이 내 안에 그리고 빛의 전달자 안에 근원되었다는 것을 잊고 있다. 빛의 전달자들은 내 능력을 사용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했다. 너희는 나와 그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그의 의지가 그에게 제한이 없이 제공되는 내 능력을 사용했다.

이로써 너희는 빛의 전달자가 특별한 위치를 가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나 자신으로부터 생명으로 창조 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나로부터 타락한 것으로 인해 실제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잃어버렸고 깊고도 가장 깊은 것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존재로서 항상 같은 원래 창조 된 영이고 현재는 그가 전에는 뜨거운 사랑으로 나에게 복종하며 최고의 축복을 누렸고 이제는 상극으로서 일하고 있다. 모든 다른 타락한 존재들은 그들의 원래의 입자로 분해가 되었다. 한때 존재로서 비추인 능력이 여러 가지의 창조물로 바뀌어 지게 되었다. 모든 빛을 잃어버린 빛의 전달자는 그가 원초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의 존재 안에 남게 되었고 단지 전적으로 반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는 내 상극이 되었고 내 상극으로써 그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의 귀환을 섬기고 있다. 왜냐면 한번 이 영적인 존재들에게 나를 택할 것인지 그를 택할 것인지 시험이 주어졌을 때 그를 선택해 불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제 항상 또 다시 이 시험에 서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내 사랑의 힘으로 생성시킨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내 대적자는 타락한 존재들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은 존재들 스스로 한다.

내 대적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존재에게 역사를 하는 반면에 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존재에게 역사해서 나를 위해 얻으려고 한다. 나를 능력의 근원으로 깨닫고 나를 자신이 존재하게 만드신 분으로 깨달은 수많은 그에 의해 창조 된 존재들이 내 편에서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축복된 상태에 남았다. 왜냐면 이들이 쉬지 않고 내 사랑의 힘을 받았고 창조하며 조성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를 의식하는 존재들은 나와 빛의 전달자에 의해 공동으로 창조되었다. 이런 자기를 의식하는 존재들은 영원히 영원까지 존재한다. 단지 한때 타락했던 존재들만이 분해가 된 상태에서 깊은 곳에서 다시 성장하기 위해 어느 기간 동안만 자기를 의식하는 것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으로써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치러야 할 때 자기를 의식하는 것을 다시 돌려받는다. 그러나 항상 단지 존재로써 존재하는 한 대적자만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면 그는 그가 그랬던 것처럼 남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시간 동안 그는 그가 그인 것처럼 남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그의 성품을 바꾸어서 사랑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는 제한이 없이 축복될 것이다. 그러면 원초에 그랬던 것처럼 내 사랑이 다시 그에게 다시 비추어지게 된다.

아멘

그 러나 나 자신을 통해 창조 된 내 첫 번째 빛의 존재 다음에 나와 빛의 존재로부터 두 번째 순위의 존재들의 생성되어 나온 것이 아니다. 너희 인간들의 생각에는 아직 여전히 제한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우리 둘의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존재들이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를 똑같이 여길 수 없다는 생각이 너희에게 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생각은 잘못 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창조한 것은 같은 능력과 같은 사랑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단지 나 자신의 올바른 형상들인 최고로 온전한 존재들만 있었다. 너희 사람들은 실제로 너의 이웃들 서로 간에 평가 절하한다. 너희는 성숙한 또는 성숙하지 못한 성품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최초의 창조 된 존재들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도 나와 내 사랑으로 창조 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알맞지 않다는 것이 이해할만 할 것이다.

영적으로 창조 된 모든 것은 단지 최고로 온전한 것들 있었다. 특별히 창조 된 존재들은 최고의 온전함 가운데 있었다. 그럴지라도 그들 중 일부가 타락했다는 것이 타락한 존재들이 적게 온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의 생산자인 루시퍼가 자신의 항상 되풀이되는 나에 대한 반발로 인해 가치가 적은 존재를 창조했을 것이기 때문에 타락했다고 영접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증명을 해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루시퍼가 나를 떠나서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사랑의 의지로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들의 일부분도 그를 따랐기 때문이다. 모든 개별적인 존재의 의지가 서로 다르게 강했던 것이 아니고 자유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왜냐하면 자유는 어떤 제한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는 모든 방향으로 향할 수 있어야만 한다. 각각의 존재들의 잘못 된 생각이 이런 타락의 두 번째 설명이다. 왜냐하면 생각할 능력은 잘못 생각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내 말씀으로 계속하여 사랑의 비추임을 통해 존재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들은 말씀을 단지 한 방향으로 해석하게 강요받지 않았다. 그들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말씀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이 내 사랑을 거절했을 때 이렇게 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깨달음의 능력을 잃게 되었고 그들의 생각은 혼동되게 되었다. 게다가 그들에게 제한이 없이 흘러 들어간 사랑의 힘이 그들을 거만하게 만들어서 그들은 자신의 능력의 충만함 가운데 같은 능력을 가진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그들의 창조주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었고 이 존재는 동시에 요구를 했다. 이런 요구 속에 내가 나 자신을 존재들에게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이 표현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렇게 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믿었다. 이런 잘못 된 생각이 내 첫째로 창조 된 존재로부터 그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왜냐하면 나에 의해 창조 된 존재들이 유지되려고 하면, 성취될 수 없어야만 한다는 더 나은 깨달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는 이런 소원을 가졌기 때문이다. 타락한 존재들이 단지 자신을 창조한 자의 의지의 희생자라고 말할 수 없음을 말해 두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존재들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들은 가장 밝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타락한 존재들은 거만한 영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의 창조주 아버지였다는 것에 대항해 거절하는 것은 존재들이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죄였다.

모든 존재는 똑같이 온전하게 창조 되었다. 이것 만으로도 그들은 아주 큰 죄에 대한 증거가 된다. 마찬가지로 창조 된 존재들 중에 일부분이 단지 나에게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음으로 나에게 신실하게 남았다. 반면에 타락한 자들은 내 사랑을 거절했고 이것이 큰 원죄가 되었고 나에게 신실하게 남은 존재들 가운데 한 존재가 이를 해결해야 했다. 타락한 존재들은 어떠한 부족함으로 부족한 깨달음의 능력, 연약한 빛, 또는 연약한 의지 등으로 핑계를 댈 수 없었다.

그들은 나에게 신실하게 남은 존재들과 같은 성품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의식하는 가운데 거만해져 내 사랑을 능력을 더 이상 영접하지 않았고 이로써 그들은 모든 능력을 빼앗기게 되었다. 만약에 그들의 다시 초기에 그들이 처했던 것처럼 되려고 하면, 그들은 힘들게 다시 능력을 얻어야만 했다. 한 존재가 타락한 데에 어떠한 부족함도 용서받을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근거는 없다.

루시퍼가 그의 의지와 내 능력을 사용해 창조한 끝 없이 많은 창조한 무리들이 가장 밝은 빛과 가장 큰 능력 가운데 서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나를 넘어서서 자기를 더 높였다. 왜냐면 그는 나를 볼 수 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 자신은 끝 없이 많은 무리의 영들이 그의 영광과 함께 볼 수 있었다. 타락한 존재들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도 나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은 점이 없었고 단지 그들이 자신을 채우고 있던, 나로부터 계속하여 받은 끝없는 사랑을 나에게 다시 되돌려주었고 이를 통해 더욱 축복되게 된 셀 수 없이 많은 원래의 영들은 그러나 나에게 신실하게 남았다.

반면에 타락한 존재들의 사랑은 더 이상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단지 받으려고만 하는 자기 사랑이 되었다. 이 과정을 너희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게 남을 것이다. 왜냐면 영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지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내가 물질 세계와 그 안에 창조물들을 창조하게 된 원인에 대해 대략 연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너희에게 설명해주려고 시도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잘못 된 생각들을 올바르게 고쳐 줄 것이다. 왜냐면 이미 단 한가지의 잘못 된 생각이라도 너희가 잘못 된 생각의 성을 쌓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성을 더 이상 파괴할 수 없다. 그래서 진리로부터 떨어져 있다. 단지 지식욕만 볼 수 있고 이 지식욕을 성취시키는 것이 혼의 성장을 위해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너희의 혼의 구원에 연관이 없는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잘하고 있는 일이다.

왜냐면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너희 자신들의 혼의 성숙함이 내가 전하는 것의 크기를 정하는 제한을 가해서 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최고로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모든 것이 내 사랑과 지혜와 능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곳에서 어떠한 부족함도 있을 수 없음을 항상 알아야만 한다.

존재를 창조할 때에 이 연결은 존재하고 있었다. 왜냐면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빛의 전달자는 가장 깊은 사랑 가운데 나에게 복종했고 그러므로 그는 제한이 없는 축복을 내 사랑의

힘이 흐르는 것을 통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사랑의 힘을 다시 내 의지에 따라 사용했다. 왜냐면 긴밀한 사랑이 우리를 서로 연결시키는 동안에는 그의 의지는 내 의지와 같았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하는 일은 그러나 내 사랑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된 존재들은 그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존재의 사랑이 나에게 향하는 동안에는 나와 함께 동행했던 그가 자신을 변경시켜서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된 것은 단지 그의 자유의지의 결과이다. 내 사랑을 거절했을 때 그는 영원한 질서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라도 그 자신이 최종적으로 나를 떠나기로 결정을 할 때까지는 최고로 밝은 빛 가운데 있었다. 그런 후 그는 먼저 깨달음을 잃게 되었고 그런 후에 그의 영이 어두워졌고 그런 후 그는 내 정반대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먼저 자신의 사랑을 받치는 것을 중단하고 내 대적자가 된 상태의 모든 성품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온전함을 잃게 되었다. 그는 부족하게 변화되었고 나에게 대적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내 사랑의 힘이 더 이상 그에게 감동을 줄 수 없게 되었고 그의 영적인 입자들이 굳어졌고 나는 이를 변화시켜 창조물들 만들어 원래 초기의 상태와 정반대인 물질이 되었다. 이런 타락한 존재들은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나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고 자유의지 가운데 내 사랑의 힘의 비추임을 받아 드릴 자세가 되었으면, 항상 자신의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타락은 자유의지 가운데 일어났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돌아오는 일도 자유의지 가운데 일어나야만 한다. 그러면 존재는 다시 제한이 없이 축복받게 되고 축복된 상태로 영원히 남게 된다.

아멘

창조하는 역사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역사였다.

B.D. No. 8975

1965년 5월 16일

내가 무한 가운데 역사하고 사역하게 만드는 원인이 나에게 끊임없는 창조하려는 의지와 변함없이 강한 내 힘과 그리고 활동해야만 하는 내 넘치는 사랑을 준다. 내 사랑은 활동해야만 하고 내 사랑을 받아 다시 나에게 주는 존재를 창조했을 때 비로소 성취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내 사랑은 내 사랑에 자신을 열고 내 사랑을 받아드리고 다시 돌려주는 그릇이 필요했고 이런 역사는 어떤 피조된 존재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게 행복하게 하는 역사였다.

끝없이 오랜 기간 동안 혼자 존재한 후에 상호 간에 교류하려는 갈망이 항상 더 강해졌다. 그러나 내가 이 전에 이미 생성한 영적 창조물들로 넘치게 기뻐할 수 있었다. 왜냐면 내가 내 의지의 힘으로 모든 생각을 완성된 작품으로 보았고 이런 내 생각들은 무수히 많았고 이로써 내가 끊임없이 창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창조하는 힘이 줄어드는 일을 전혀 느끼지 않았고 반대로 내가 창조하는 힘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힘이 계속하여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사랑의 힘을 담은 나와 같은 그릇을 창조하고 이런 그릇이 모든 성품들을 갖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내 형상으로서 같은 창조하는 권세와 힘을 가진 존재를 생성하려

는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생각으로 이미 모든 영광을 가진 내 뜻의 작품이 내 앞에 서있게 되기에 충분했다. 이로써 내가 그 안에서 나 자신을 깨닫고 내가 창조한 존재를 기뻐하게 되었다.

이런 존재와 교제하는 일이 나를 넘치게 행복하게 했다. 이런 존재는 내 형상이었다. 그러나 나는 존재에게 나를 보여줄 수 없었다. 왜냐면 보여준다면, 그가 원래의 불 앞에 소멸되었을 것이기 때문이고 이런 원래의 불이 모든 영의 원래의 성분이지만 내 충만한 사랑과 권세와 힘을 견딜 수 있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비록 존재들이 헤아릴 수 없게 축복되었지만 존재들은 항상 단지 발산된 불씨이고 영원한 빛을 볼 수 없는 내 피조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조물은 나에게 그릇이었고 내가 내 사랑의 힘을 그에게 흐르게 할 수 있었고 창조물은 또한 마찬가지로 창조하는 일을 위해 사랑의 힘을 다시 사용했다. 그의 소망이 같았기 때문에 그는 나와 함께 나와 같은 존재를 다시 생성했고 창조하는 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축복은 헤아릴 수 없게 컸다. 우리 둘의 사랑하려는 의지가 항상 새로운 존재를 생성했다. 왜냐면 공간에 제한이 없었고 창조하는 힘이나 사랑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고 같은 방향을 향한 우리의 의지도 한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말씀을 통해 내 뜻을 계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둘에게서 나온 존재들에게도 내 뜻을 계시했다. 내 말씀이 그들 모두가 나를 그들의 기원이라는 증거를 주었고 이로써 그들이 이를 깨닫게 했고 그들은 끊임없이 내 음성을 듣고 또한 나에게 답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고 나는 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는 동시에 생각하는 능력도 주었고 그들이 신적인 존재라는 증거인 자유의지로 이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을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강요받지 않았고 그들은 내 말씀이 자신 안에서 모든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 있었다. 이로써 그들이 그들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내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존재들이 초기에는 내 뜻에 저항하지 않았고 무한히 축복되었고 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이런 상태가 끝날 필요가 없었다. 나에 의해 첫 번째로 생성된 존재가 나를 볼 수 없었다는 하나의 생각을 잘 감당했고 스스로 자신에게 나를 보게 해줄 권세가 나에게 없다는 설명을 했다면 이 상태는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에게 시작점이 있는 반면에 나는 영원으로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내가 수정해줄 수 있도록 이런 의심을 나에게 아뢰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 앞에 감출 수 있다고 믿었다. 왜냐면 이런 생각이 항상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때때로 그 안에서 떠올랐고 그가 항상 내 사랑에 헌신하고 또한 내 사랑을 분산되지 않게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한때 자신에게 흘러오는 내 한결같은 사랑을 의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의심이 항상 또 다시 떠올랐고 이로써 그는 불신의 상태를 만들어 냈다. 이런 상태는 피조물과 나 사이에 영원히 있어서는 안 될 상태이다.

그러나 처음으로 창조된 원래의 영 안에 불신은 항상 더 강해졌고 게다가 이제 자신을 수많은 존재들을 창조한 창조자로 여겼고 창조된 존재들은 모든 영광을 가진 그를 볼 수 있었지만 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마찬가지로 생각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불신 가

운데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다. 그럴지라도 그는 자신의 근원인 나를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이 그들의 창조자였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없기를 희망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나 위로 올라섰고 이제 자신이 아주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 더 이상 내 힘이 필요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내 사랑의 힘을 거부했다. 이런 일이 그의 죄이고 그를 따른 모든 타락한 존재들의 죄이다.

(1965년 5월 16일) 이와 동시에 이제 모든 것이 반대인 두 번째 세계가 창조되었고 이 세계는 이제 이전의 내 대적자에 의해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창조된 모든 존재들이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도 내 의지와 내 권세 아래 있었고 모든 긍정적인 세력들이 부정적인 세력들과 싸웠다. 싸우는 목표는 항상 모든 부정적인 세력들을 되찾는 일이다. 비록 내가 처음 창조된 영에게 동일한 창조하는 권세와 힘을 주었지만, 그가 나를 떠나 타락함으로 이런 권세와 힘을 잃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자유를 준 반면에 나는 모든 타락한 존재들을 돌보았다. 즉 내가 존재들을 그로부터 빼앗아 모든 종류의 창조물로 형성했다. 왜냐하면 내 사랑이 그들을 나에게 다시 데려올 길을 찾지 못했다면, 불행했고 영원히 불행하게 머물러야만 하는 그들의 상태를 내가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귀환하게 하는 과정은 끝없이 긴 시간이 걸리고 영원히 영원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내 대적자는 항상 단지 영적인 존재가 인간 단계에서 이 땅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신에게 속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그의 권리를 일시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존재가 자신을 도울 방법이 없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영접하지 않고 그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는 존재를 다시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한다. 이 기간 동안에 그의 권세는 강력하고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내 은혜는 측량할 수 없고 언제나 그의 권세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원하여 나에게 순종하는 일이 실제 가능하고 그러면 그의 불행한 상태가 끝나게 된다.

그러나 내 이전 나를 떠나 타락한 죄가 최종적으로 속죄 될 때까지 아직 영원한 시간은 지날 것이고 한때 가장 큰 빛의 영으로 나에게 의해 생성된 그가 귀환을 결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직 영원한 시간이 지날 것이다. 왜냐하면 타락한 영들의 무리는 끝이 없게 많고 그들이 구원받은 존재로서 빛과 축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대적자가 그들에게 부과한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기 까지 끝이 없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끝이 없고 내 권세는 한계가 없고 내 지혜는 내가 영들의 세계를 창조할 때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상 생각한다.

아멘

악은 어떻게 발생되었는가?

B.D. No. 8863

1964년 10월 3일

너희 사람들이 내 안에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듯이 너희가 나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올바른 관계를 이룬 것처럼 너희는 나와 올바른 연결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해 너희는 깊은 겸손으로 채워져 있다. 너희는 나로부터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나는 올바르게

게 기도하는 너희 누구에게도 너희의 이런 기대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올바른 기도에는 번복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겸손히 있어야만 한다.

왜냐면 겸손한 자에게 나는 내 은혜를 선물해주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그러나 내가 말을 걸 때에 너희 자신을 열어야 한다. 너희는 깊은 기도 후에 너희 안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나로부터 온 답변으로 깨달아야 한다. 왜냐면 너희에게는 내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이를 너희에게 너희가 단지 올바르게 나에게 기도하면, 다시 말해 영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나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성취시켜 준다는 약속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러나 너희가 울리는 소리로 내 음성을 듣는 특별한 결과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깊은 기도 후에 너희 안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내 답변이다. 너희는 진실로 나 이외는 다른 어떤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없는 선한 생각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너희의 생각이 나를 향해 있으면, 내가 이것을 안다는 것을 그러면 너희를 대적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없음을 너희가 항상 생각해야만 한다. 너희의 나에 대한 자세가 나를 기쁘게 함을 너희가 알아야만 한다. 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드물게 가능할 지라도 내가 울리는 소리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너희의 혼의 성장 정도에 달려 있지만 나는 너희를 너희 혼의 성장 정도에 따라 돌봐줄 수 있다. (1964년 10월 3일)

만일 내가 울리는 소리로 나를 나타낼 수 있으면, 모든 오류는 사라진다. 왜냐면 너희 안에서 내 말이 선명한 종소리처럼 울리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내 음성을 들으면, 너희는 넘치게 행복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가장 깊은 지혜의 계시를 줄 수 있다. 너희는 이런 계시를 염려할 것이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다음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한 사람이 이런 문제를 탐구하면서 대적자에게 개입을 할 기회를 주게 되고 그가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서 작은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음성을 듣게 되면, 그의 이성이 잘못 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음성은 그 사람의 의지에 맞게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미리 "오류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나에게 울리는 것이 특별하게 중요하다. 왜냐면 이 기도가 그를 대적자의 역사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이제 나 자신으로부터 직접 대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게 된다. 왜냐면 이런 기도가 대적자를 물리치기 때문이다.

악이 나로부터 근원되어 나왔는지에 대한 바로 이런 질문을 너희는 계시가 주어질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내가 악한 생각을 내 안에 가질 수 없음을 말할 수 있다. 나로부터 출발되어 나온 모든 것이 단지 선한 것 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존재들의 생각할 능력에서 너희는 해명을 찾을 수 있다. 왜냐면 생각하는 능력은 자유였고 나로부터 그들에게 비추어지는 선한 생각을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었다.

자유의지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방향으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악은 자유의지로부터 생겨나게 되었고 이 전에는 악이 없었고 악은 자유의지의 생산품이다. 왜냐면 존재들의 생각하는 능력에 어떠한 제한도 없었기 때문이다. 악은 자신의 권세를 나와 내 의지에 대적해 나타낸 자의 창조물이다. 그에게는 창조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악을

창조했고 이는 그에게 속한 것이다. 그가 이 악을 세상에 불러들였다. 이로써 그는 깨끗하지 못한 존재가 된 것이다.

너희는 항상 가장 온전한 존재인 내 안에서 절대로 존재한 적이 없는 악의 짐을 나에게 지우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내 대적자가 악의 근원이다. 그가 자신의 생각하는 능력을 자신 안에서 스스로 악으로 바꾼 것이다. 왜냐면 그가 내 사랑흐름의 모임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 영원한 질서를 벗어난 것이다.

너희는 그가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존재였고 나로부터 비추어진 선한 생각을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바꾸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왜냐면 내가 모든 존재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존재에게 생각할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든 존재들이 그들의 자유의지와 그들의 생각하는 능력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가? 자신으로부터 악을 만드려낸 것이 그 자신이었다.

그가 자신 안에서 잘못 된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내 능력을 시기했고 이로부터 모든 악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악들은 그로부터 근원이 된 것이다. 왜냐면 그는 자신의 생각하는 능력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자유의지 때문에 이를 바꿀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로부터 그에게 잘못 된 생각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항상 이런 존재인 루시퍼 즉 빛의 전달자가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창조했던 존재와 달랐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 이런 존재는 내가 그 안에서 내 형상을 창조했고 이 존재는 나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에게 내가 가장 큰 창조의 권세를 주었고 그리고 아주 선했다.

그러나 우리 둘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수많은 존재들이 그를 거만하게 했다. 이런 거만함이 그의 생각을 잠시 동안 흐리게 했다. 이것이 바로 내 성품에 반대되는 작은 자기 사랑의 시작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내 밖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내 질서 안에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니다. 이 존재 루시퍼가 나로부터 떠날 것을 선언했고 그 안의 모든 것이 반대가 되어 깊이 악한 존재가 되었다. 그 스스로 모든 성품을 만들어 냈고 나타냈다. 너희는 항상 단지 말할 수 있다: 나와 같은 권세를 가진 그가 악을 이 세상에 주었고 내 안에도 악이 있어 내가 이 악을 존재들에게 전파한 것이 아니다.

타락하지 않는 존재가 있게 된 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능력"이 꼭 타락으로 인도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내 대적자에게는 수많은 수단이 주어져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타락하게 했다. 내가 가장 높은 존재로서 그들에게 볼 수 없었던 반면에 그러나 그는 모든 빛의 충만함으로 비칠 수 있어 그들이 비록 밝은 빛 가운데 있었을 지라도 루시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타락은 영원히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났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에게 의해서 순수하지 못한 영으로 창조되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모든 악한 성품들은 서서히 발전해 나갔다. 그러나 절대로 이 악한 성품이 내 안이 근원이 되어 나온 것이 아니고 이와 반대로 나와 같이 권세가 있었던, 그가 나로부터 시작되어 나왔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자 안에서 근원이 되어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영들이 나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악은 시작되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온전 했다. 그도 모든 온전함 가운데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왔다. 그러나 그의 이 모든 은사를 내 의도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에게 제외 된 것은 아니다.

나로부터 항상 그에게 선한 생각만이 흘러 들어 갔고 내가 미리 정하지 않은 그의 생각하는 능력이 타락을 가져오게 했다. 나는 항상 또 다시 수많은 타락하지 않은 존재에 대해 알려 준다. 이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은 같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루시퍼가 자신 안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그가 악을 세상에 주고서 내 안에 악이 있다고 하며 나 자신에게 타락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가 오류로 인도받을 만한 사람들을 항상 오류 가운데 인도하려고 함을 발견했다.

아멘

온전했던 존재가 언제 왜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B.D. No. 8887

1964년 11월 25일

나에 의해 생성된 모든 존재는 온전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내가 온전하지 못한 어떤 존재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고 내 사랑과 지혜와 권세가 내 뜻대로 나에 의해 생성된 창조물들에 어떤 결함이 있는 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래 초기에 내가 동일한 창조하는 권세를 부여한 존재를 창조하는 일을 기뻐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로써 내가 이런 존재가 내 힘을 사용하여 그의 의지로 자신과 같은 존재가 태어나게 하는 일을 통해 존재를 행복하게 했다.

그러나 이런 온전함에 의의를 제기하는 일은 단지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제한된 생각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이 생성되게 하는 일이 불가능한 온전한 상태를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나로부터 단지 온전한 존재가 나올 수 있다면, 언제 온전한 존재가 온전하지 못한 존재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는가?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다. 나에 의해 온전하게 창조된 존재가 반대가 될 수 있다는 일은 너희에게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의문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일을 허용한다는 사실은 너희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날 수 있고 그러므로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존재가 원래 온전했던 상태를 이와 정반대의 상태인 내 온전한 성품에 전적으로 반대인 경건하지 못한 상태로 바꿀 수 있다. 내가 처음으로 창조한 존재가 동등한 창조주의 권세를 받았고 그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반대의 상태로 바꾸었다.

나는 내 온전함으로 인해 나 자신 안에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그의 자유의지로 다른 방향을 향했다. 인간으로서 너희의 생각에 제한이 있다. 너희는 내 성품 자체 안에 원인이 있고 악이 나에게서 나왔다고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존재들을 온전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면, 영들의 타락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그에게 타락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는 최고로 온전한 존재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최고로 온전한 존재는 진실로 자신에게 가능한 대로 너희를 최고로 온전하게 창조할 수 밖에 없었다. 너희가 모든 모순되는 것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기를 원하는 일은 단지 너희가 내 원래의 성품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나는 무엇이 나를 대적하는 지를 안다. 왜냐면 내가 대적자의 잘못된 생각을 읽을 수 있었고 그의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의 죄는 그가 나에게 반역한 일이고 그가 내 힘을 잘못 사용한 일이고 그러므로 서서히 나를 미워하기 시작한 일이다. 나는 또한 그의 생각이 어디로 향할지를 알았다. 그러나 나는 그가 타락하는 일을 막지 않았고, 비록 존재들이 또한 전적으로 온전하게 나에게 의해 생성되었을지라도 그를 따르려는 존재들을 막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존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은밀한 저항으로 나에게 대적하는 자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이 존재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 왜냐면 대적자가 이제 자신의 모든 미워하는 생각을 이런 존재들에게 전했고 이런 생각이 존재들을 타락하도록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들이 나에게 반역했고 더 이상 나를 깨닫지 못했고 내 사랑의 힘을 거부했다.

그러나 모든 모순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고 여기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는 너희가 내 형상대로 너희를 창조한 내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일에서 나타나고 너희의 타락을 옹호하는 내 지혜를 의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나타나고 항상 단지 최고로 온전한 존재를 창조할 수 있는 내 전능함을 의심하는 일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가르침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거부한다. 이런 가르침은 항상 너희가 내 원래의 성품을 올바르게 깨닫는 일을 방해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받기를 갈망하는 나를 향한 사랑을 너희가 거부하게 할 것이다.

아멘

타락하지 않은 원래의 영이 행하는 일

B.D. No. 8755

1964년 2월 17일

너희가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너희는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가르쳐야만 한다. 너희는 모든 잘못 된 가르침을 반박할 수 있어야만 한다. 스스로 너희가 너의 이웃에게 영적인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에 관해 전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에 너희가 나 자신으로부터 설명을 받으면 너희는 확신 가운데 너희의 지식을 옹호할 것이다. 왜냐면 나 만이 모든 것을 알고 단지 나만이 너희에게 너희 이성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를 창조 하는 일은 항상 내 사랑의 힘을 나 자신이 첫 번째 존재로 창조한 그릇 안에 부어 주는 것이었다. 이 그릇은 내 사랑의 힘의 흐름을 받아서 그가 내 형상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시 그에게 흘러온 능력을 활용해 창조적인 일을 했고 같은 성품을 가진 끝 없이 수 많은 존재들을 창조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나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사랑의 힘이다. 모든 존재는 최고로 온전해야만 했다. 왜냐면 나로부터 어떤 것도 온전하지 못하게 나올 수 없기 때문이고 내 사랑의 힘은 약화되지 않았기, 같은 사랑의 힘이 모든 존재에게 흘러 들어 갔기 때문이다.

나로부터 어떤 것도 두 번째 품질을 가진 채로 창조되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존재 스스로 그들의 잘못 된 의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신적이지 못한 존재로 만들 수는 있었다. 모든 존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온전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유의지는 결정해야만 했다.

왜냐면 존재는 자신의 온전함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유의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반대로 변화될 수 있을지라도 온전하게 남을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이런 의지에 시험에서 수많은 존재들이 스스로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그들의 주인을 따라 깊은 곳으로 따라가게 되었다. 이에 관해서 너희는 자주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단지 내 의지만을 실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지 않은 창조된 존재가 있었는 가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수준이 낮은 존재를 창조한 것이고 이들에게는 온전함이 없다고 말해야만 한다. 왜냐면 자유의지는 온전한 존재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존재는 자신의 창조주의 의지대로 존재가 없는 작품이고 어떤 면에서는 죽은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자유의지가 비로소 모든 행하는 일에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존재의 의지가 나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느냐 또는 자신의 고유의 의지대로 역사하느냐가 이제 나와 이 존재의 관계를 정한다. 타락하지 않은 모든 존재들은 전적으로 모두 나에게 속하게 되고 그들의 의지를 스스로 내 의지 아래 복종시키며 나와 함께 내 의지 안에서 역사를 한다. 그들은 내 의지에 합당한 것만을 실행한다. 왜냐면 나와 연합이 됨으로 인해 그 자신도 나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타락한 존재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자신을 분리시키고 내 의지를 무시했고 나를 대적하는 역사를 했다. 이들은 끝 없이 오랫동안 깊은 곳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자유의지로 다시 내 의지에 복종할 수 있는 높은 성장 정도에 도달한다. 그러면 그들은 나와 함께 그들의 의지가 되어버린 내 의지 안에서 창조하고 역사한다. 너희는 구별을 해야만 한다.

자유의지의 시험 가운데 나에게 신실하게 남은 항상 내 의지 안에서 창조하고 역사 함으로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된 자유롭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영원한 질서의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유롭지 못한 내 위해 정해진 존재로 느끼지 않는 빛의 존재와 그들의 자유의지를 반대로 향하게 해서 만약에 내가 깊은 곳에서 나오게 성장 과정 동안 그들의 의지를 묶지 않았으면 항상 나를 대적해 역사하는 타락한 존재들이 있다. 이런 존재들에게 이제 귀환하는 과정이 일어난다.

모든 빛의 존재들은 다시 말해 전에 한번 타락한 적이 없는 존재들이나 또는 이 땅의 삶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했거나 이미 높은 빛의 정도에 서게 된 존재들은 이 귀환의 역사에 참여를 한다. 모든 이런 존재들은 내 의지를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 그렇지라도 그들은 자유롭고 스스로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강요 가운데 있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만 실행해야 하면, 이는 진실로 신적인 온전한 존재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에게 온전함의 의미를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 온전한 상태는 모든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이고 제한이 없이 행복한 것이 온전한 존재의 운명이다. 그러나 온전한 존재가 어떤 일을 하게 정해졌다면, 즉 어느 정도 자유롭지 못하면 온전한 것과 조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의해 창조되어 나에게 머무른 영들의 무리는 수 없이 많다.

이들은 모든 타락한 존재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무한한 가운데 항상 구원하려는 생각하며 역사한다. 그러나 이런 존재들이 내 의지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오류이다. 그들은 나를 그리고 구속을 받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섬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은 높은 사랑의 영들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그들이 나를 위해 일 하게 만든다. 나는 단지 생각하기만 해도 진실로 이런 빛의 존재들이 스스로 축복을 느끼기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는 일을 내 의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빛의 존재라고 말하는 존재들은 끝 없이 많은 최고의 온전함 가운데 있는 큰 무리의 천사들이 나를 떠났을 때 그들이 나에게 머무름으로써 그들의 온전함을 증명한 내 천사들의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빛의 존재들도 한번 깊은 곳을 거치는 과정을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역사를 스스로 완성시킨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섬기려는 의지의 사랑으로 스스로 내가 창조할 수 없는 창조 역사를 완수한다. 왜냐면 이 역사는 존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써 최고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유의지를 전제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신실하게 남은 모든 존재들은 가장 높은 빛의 단계에 서 있다.

그들의 나를 향한 사랑은 표현할 수 없다. 그들은 내 의지를 알고 있고 그들의 끝 없이 깊은 사랑 때문에 어떤 다른 의지도 자신 안에 둘 수 없다는 것은 이 해하만 하다. 그러나 어떤 존재도 내 의지에 묶여 있지 않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의 축복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런 일은 내 위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지라도 내 모든 창조의 작품이 내 천사들의 질서 아래 있는 것은 나로부터 한때 존재로 발산 된 능력들은 쉬지 않고 일해야만 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내 사랑은 항상 또 다시 내 피조물들을 계속하여 행복하게 하기 위해 생각한 것을 실행에 옮기게 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자유 가운데 행하는 일만이 단지 축복을 준다.

강요 가운데 행하는 일은 절대로 축복을 줄 수 없다. 왜냐면 단지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만이 정해진 기간 동안 강요 가운데 있다. 그러나 빛의 천사로서 내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존재들은 절대로 강요 가운데 있지 않다.

아멘

너희가 진리 안에서 거하길 원하고 이 진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면, 내가 아직 많은 오류들을 수정해야만 함을 믿으라. 너희는 내 제한이 없는 창조의 능력에 아주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창조 된 존재들에게 제한이 없는 총만한 능력을 부여주어서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 안에서 쉬지 않고 어떠한 제한도 없이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신실하게 머물러서 나 자신의 소유인 나에게 속한 무리들의 창조영역에서 자유의지로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지 않은 존재들의 창조 능력에 정도의 차이를 둘 수 없다.

모든 존재는 온전하게 창조 되었다. 이는 어떤 존재도 어떤 제한 아래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존재에게 그들이 양심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가 주어 졌다. 한 과제가 다른 과제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로써 어떤 계층의 차이도 없었다. 모든 존재들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모이게 되었고 그들은 항상 나에게 사랑으로 응답함으로써 더욱 행복해지기 위해 항상 나를 추구했고 너희 사람들은 이를 어떤 측정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깊은 곳을 극복한 존재들의 사랑의 정도만이 다를 수 있고 이들은 그러나 어느 정도 빛의 단계에 서 있고 이 단계를 계속하여 높이려고 한다. 깊은 곳으로부터 빠져나온 성장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이들의 축복에는 제한이 없다. 이들은 이제부터 축복을 의식하며 영원 가운데 사는 삶은 단지 찬양과 감사가 될 것이다. 이들에게도 항상 계속하여 성장하는 그들의 빛의 총만한 상태에 따라서 창조하고 모든 것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허용 된다.

모든 온전한 존재들에게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 이로써 우선권을 가진 어떤 존재도 없다. 능력을 많이 또는 적게 가진 존재로 분류하려는 너희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 온전함에는 이런 차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항상 인간적인 개념이다. 왜냐면 너희는 적게 또는 크게 부족한 상태이고 이런 성품을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빛어진 존재들에게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가장 작은 존재를 또는 가장 큰 존재를 창조 하는 데에 같은 창조의 능력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들은 모두 다 내 창조의 기적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최고로 온전한 존재는 다른 존재를 섬기려고 하는데 있다. 다른 존재에 비해서 어떤 우선권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천사 또는 천사장이라는 표현이 올바른 것이 아니고 모든 존재가 내가 창조한 원래의 영들의 큰 무리에 속한다. 너희 인간들이 단지 이 땅에서 계급을 만드는 것처럼 계급 식으로 영의 세계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직 낮은 성장단계에 있으면, 너희의 사랑의 정도는 서로 다르다. 너희는 어떤 것도 능력과 권세로 창조할 수 없다. 너희는 너희가 깊은 곳으로 타락할 당시의 원래의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계속하여 사랑의 정도를 높이려고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하는 것도 이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목적으로 빛의 존재도 사명을 위해 만약에 그가 이 땅에서 실패했으면, 그러나 저세상에서 다시 한번 육신을 입는 것을 허용 받을 정도로 성장했으면, 다시 한번 이 땅에 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타락하지 않은 영들도 자신의 자유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깊은 곳을 통과하는 과정을 갈 수 있다. 그러나 이 들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고 이 영들 안의 창조하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는 항상 더 많이 내 사랑의 힘을 요구하고 나를 추구하고 그를 전적으로 채우고 있는 내 능력을 활용해 창조를 한다.

온전함에는 제한이 없다. 온전한 것은 제한을 알지 못한다. 온전한 것은 나와 같이 권세가 있고 창조하고 가장 작은 것뿐 아니라 가장 큰 것도 만들어 낸다. 왜냐면 항상 이 창조가 불행한 자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랑이 원래 무엇인지를 알면, 너희는 이를 이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사랑의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그러나 이런 평가가 그 존재가 온전하면, 중단이 된다. 왜냐면 온전하다는 것은 무제한으로 축복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존재의 사랑이 단지 최고로 온전한 존재인 나에게만 향한다. 나는 내 사랑을 구하는 자들에게 항상 채우고 이 사랑은 그럴지라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피조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B.D. No. 6207

1955년 3월 7일

너희 모두는 원래 초기에 다 나에게 속해 있었다. 왜냐면 내 사랑의 힘이 너희를 충만하게 채웠고 너희를 나에게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 상태는 너희에게 최고의 행복한 상태였다. 왜냐면 너희가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이다. 너희는 형체가 된 내 사랑의 발산이었고 너희는 최고의 지성을 가진 형상이었고 너희가 창조적으로 역사할 수 있게 하는 빛과 능력을 가진 형상이었다. 너희는 온전한 존재이고 나 자신의 형상으로써 나와서 나의 차이점은 너희가 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반면에 나 자신은 영원부터 존재하고 나 이외에 다른 어떤 창조하는 능력이 역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온 내 작품이고 이로써 또한 최초로 창조된 존재가 내 동의 아래 내 힘을 사용하여 너희 모두가 생성되게 했다. 이런 존재가 자신을 너희가 창조하는 힘으로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과 달리 그는 내 작품이었다. 이런 존재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피조물들이 생명으로 생성되었다. 왜냐면 그가 나로부터 쉬지 않고 흘러가는 힘을 창조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했고 그에게 그렇게 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온전했고 그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무한한 영의 나라를 생명으로 채우는 목적으로 나에게 의해 나와 같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최초로 창조한 피조물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무제한으로 그에게 빛과 힘을 주었고 그가 이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내가 그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온전함에 합당하게 역사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이런 자유의지를 나를 위해 사용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의 의지가 내 의지에 반대로 역사했고 이런 일은 가능한 일이었다. 왜냐면 그는 그의 온전함에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강요가 없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내 권세보다 내 사랑을 더 많이 추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받은 내 사랑의 힘으로 만족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와 내 사랑으로 창조 된 수많은 존재하는 피조물들로 인해 그 안에서 피조물들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생기게 되었다. 비록 그가 피조물들을 창조할 때 내 힘이 함께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의 나를 향한 사랑을 대적하는 느낌으로 바꾸었다. 그는 내 힘을 시기했고 그러므로 그는 내 힘으로 창조 된 존재들을 자신이 소유하고 다스리기 위해 존재들이 나와 결별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만약에 피조물들이 내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고 서로 떨어 질 수 없게 나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나 자신이 피조물들을 내주지 않았다면, 그가 피조물들을 나와 결별하게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존재들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 자유롭게 놔두었다.

온전하게 창조 된 너희는 영원히 단지 내 뜻대로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내 피조물로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생각해둔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즉 너희는 최고로 온전한 가운데 나를 향한 사랑과 내 피조물들을 향한 사랑과 자신의 자유의지로 역사하는 자녀와 일치하지 않는다. 나는 이를 이루기 원했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자유를 주어 내가 정한 목표에 너희가 스스로 도달할 수 있게 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거두어 드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이제 내 첫 피조물인 내 대적자가 동시에 너희에게 역사하는 일을 막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너희는 이제 나를 또는 내 대적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너희는 타락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면 너희는 빛 가운데 있었고 내 사랑을 느꼈고 내 사랑이 너희를 나에게 이끌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대적자의 너희를 향한 영향력도 컸고 너희가 여기에 넘어가 그를 자유의지로 따랐다. 내 대적자는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고 깊은 곳으로 타락시킨다. 왜냐면 내 대적자는 나에게 불순종했고 나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내 사랑의 힘을 효과가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그에게서 힘을 거두어들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나로부터 멀어져 감으로 인해 내 사랑의 비추임이 항상 더 약해졌다. 왜냐면 그가 깊은 곳으로 끌고간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고 스스로 힘이 충만하다고 믿고 내 사랑의 비추임에 공개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이제 내 사랑의 힘이 없게 되었다. 비록 나 자신이 이 힘을 너희로부터 거두어들이지 않았고 너희가 이 힘을 거절했고 이로써 너희가 무능력한 어두운 영이 되었다. 너희는 자유의지로 형용할 수 없는 복된 원래 상태를 포기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택한 상태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냐면 내 사랑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가 또한 너희가 정함받은 바와 너희의 생성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상태로 너희를 절대로 영원히 놔둘 수 없는 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한때 정한 목표인 너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이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나를 거절함으로 인해 불행한 가운데 있는 너희도 언젠가 다시 빛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제한이 없는 능력을 기뻐하게 될 것이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강요하는 역사를 하지 않는다. 너희는 전적인 자유의지로 스스로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 즉 너희가 한때 가졌지만 그러나 너희가 포기했던 온전한 상태에 언젠가 거부할 수 없게 다시 돌아와야만 한다. 왜냐면 내 사랑이 너희가 내 자녀로서 내 나라에서 빛과 힘을 가지고 축복된 가운데 역사하며 창조하는 단지 이런 한가지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피조물들의 의지를 안다.

B.D. No. 8631

1963년 9월 30일

나는 모든 것을 본다. 나는 영적인 존재가 자유의지 가운데 어떻게 결정할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 동안 사람들이 나에게 저항을 할지 그들의 의지를 영원으로부터 안다. 그러나 이 지식이 내가 창조한 존재를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계획을 실천하는데 방해하지 못한다. 왜냐면 내가 내 사랑으로부터 영적인 존재를 창조했을 때 나 자신이 세운 목표에 언젠가는 도달함을 마찬가지로 미리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로 나는 내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나로부터 얼마 동안 떨어져 있으려고 하던지 간에 나에게서는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너희 사람들에게는 끝 없이 긴 시간으로 여겨지는 영원한 시간도 나에게서는 단지 지나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로부터 아직 떨어져 있는 너희 인간들에게는 아직 온전하지 못한 너희에게는 시간개념이 너희가 다시 완성이 될 때까지 모든 제한이 사라지게 되는 너희의 원래 속성으로 변화될 때까지 유효하다. 변화될 때까지 운명은 축복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면 너희가 완성에 이를 때까지 고난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내가 세운 목표는 너의 자신 스스로 도달해야만 한다. 너희 자유의지가 이를 위해 애를 써야만 한다. 그러나 이 의지가 나에게 아주 오랫동안 저항하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나는 저항을 포기하게 하는 수단을 써야만 한다. 이런 수단은 종종 고난이다. 고난 가운데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를 도와주는 존재를 의존하려는 욕구를 갖게 된다. 그러면 결국 나와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목표로 인도하는 나에게 가까워지게 된다.

내가 창조한 존재들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존재들이 나로부터 타락했을 때 이를 막지 않게 했다. 왜냐면 이런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존재들 스스로 자유의지 가운데 이루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온전함을 버렸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높은 것으로 끌어올리는 그래서 나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강요 된 것이 아니고 그의 의지 스스로 추구해야만 하는 최고의 단계의 온전한 정도에 도달하기 위한 큰 역사를 완성시켜야만 한다.

내가 전적으로 자유하고 최고로 온전한 존재를 내 옆에 두려고 하는 데는 의지의 자유가 유일하게 결정적인 것이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신적인 존재들이고 신적인 존재들로 남게 된다. 왜냐면 그들은 전적으로 내 형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권세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나 스스로 가장 깊은 사랑과 가장 빛나는 지혜에 기초한 영원한 질서의 법을 어길 수 없다. 나는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를 창조 할 수 없다. 왜냐면 나는 단지 온전한 것만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온전함에 속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존재는 이제 자신의 신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온전함을 자유의지 가운데 유지하고 전적으로 모두 내 의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를 통해 온전한 가운데 남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의지를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만 한다. 그들은 나로부터 강요 가운데 붙잡혀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을 나로부터 생성되

어 나오는 모든 존재들이 해야만 했다. 나는 이런 의지에 시험에 성공의 여부를 알았다. 그럴 지라도 나에게서는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지혜가 선하면서도 효과가 충만한 것으로 깨달은 항상 단지 내 사랑에 근거한 내 모든 피조물들을 측량할 수 없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아주 다양한 수단을 사용했다.

나는 언제든지 내 피조물의 영적인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정체 된 귀환의 과정을 다시 진행시키기 위해 언제 결정적인 변화나 또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지를 안다. 시간은 나에게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면 존재들의 시간 개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온전한 상태에 도달하면, 그들은 이 긴 성장의 기간을 단지 짧은 순간으로 볼 것이고 이를 극복한 것으로 인해 축복될 것이다.

그들은 다시 가장 밝은 깨달음 가운데 서게 되고 만약에 존재들이 최고의 완성인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하려면, 영원한 질서의 법칙이 바로 이런 귀환 과정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그들은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에게 그의 모든 사랑을 바치게 된다. 그러면 존재들은 그들이 원초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제한이 없이 축복된다.

아멘

원죄. 사랑의 발산. 예수 그리스도.

B.D. No. 6087

1954년 10월 23일

나에게 반역한 첫 번째 죄가 내 피조물들이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왜냐면 내 피조물들이 나 자신을 거부함에 따라 내 사랑의 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스스로 내 사랑의 흐름 밖으로 벗어났고 항상 계속하여 나로부터 멀어졌다. 그러므로 나에게 대한 저항은 내 사랑의 힘을 거부하는 일과 같다. 아직 내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내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될 수 없다. 그가 나를 믿지 않고 이로써 나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이미 저항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고 그러면 그는 내 사랑의 흐름 밖에 있다. 그는 내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왜냐면 그가 사랑에 자신을 자원하여 열지 않기 때문이고 그에게 나와 연결을 이루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일은 한때 나에게 반항하여 내 대적자가 된 자의 권세에 전적으로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계획은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쳐 피조물들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느끼게 하고 그들을 창조하고 그들과 연결을 이루기를 원하는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인정하지 않는 일이 또한 전적으로 힘이 없게 만들고 생각이 어둡게 한다. 빛과 힘은 단지 나에게서 얻을 수 있다. 그들이 빛과 힘을 주는자를 경멸하기 때문에 그들은 빛과 힘을 경멸한다. 왜냐면 그들에게 자신을 또한 생성되게 한 빛과 힘의 근원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원래의 원천을 거부하는 정도로 그들 자신이 원래의 근원에서 얻을 수 없게 만든다. 그들이 자유의지로 이런 원천을 추구할 때까지 그들이 자신을 창조한 권세를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열고 그들이 빛과 힘을 주는 존재와 연결을 이룰 때까지 그들은 빛이 없고 힘이 없는 가운데 머문다. 그들이 연결을 이루면,

그들은 이제 축복을 받고 그들이 한때 자원하여 떠난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측량할 수 없게 받게 된다.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은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 왜냐면 내 사랑은 절대로 소모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계속하여 주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내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열린 그릇을 단지 요구한다. 사람 안에 자신을 창조한 권세와 연결을 이루려는 진지한 의지가 깨어나면, 그는 원죄와 나를 대항하는 반역으로부터 돌이키고 이런 큰 죄짐을 위해 피를 흘린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반드시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해진 인류를 위해 인류의 의지를 강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보물을 얻기 위해 십자가에서 끝없는 고통을 당하고 죽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그에게 풍성하게 제공되는 은혜를 활용하고 인간 예수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빛을 갠 나를 인정하면, 이런 모든 사람은 이제 나와서 먼 거리를 줄일 수 있고 그들이 한때 나를 반역했던 큰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사랑의 흐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넘치게 빛과 힘을 받을 수 있다.

아멘